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37호
2022년 5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올해가 30년째 봉사... 뉴욕 '메트' 박물관 투어 가이드 구창화 동문



구창화(응용미술 65) 동문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투어 가이드로 봉사한지 올해가 30년째다. 1년여의 훈련과 오디션 거쳐 투어 가이드가 됐다. 팬데믹 기간 중엔 한국어로 '버추얼 투어(Virtual Tour)'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버추얼 투어' 오프닝 장면이다. <관련기사=5면>

제 1회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 선발

10명 최종 선정... 1인당 1만 달러 지급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가 한국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1회 전국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선발대회(총규모 10만 달러)에서 10명이 최종 뽑혔다. 장학금은 1인당 1만 달러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선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홍택(공대 60·UCLA 석좌교수) 박사는 10명을 최종 선발해 지난 4월 30일자로 개별 통보했다고 밝히고 명단은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https://www.snuaa.org>)에도 실렸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생 선발대회에는 전국에서

모두 68명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6명, 남성이 4명으로 나타났는데 출신 지역은 캘리포니아(3명)가 가장 많았으며 뉴욕(2명)이 뒤를 이었다. 뉴저지와 조지아, 워싱턴, 텍사스는 각각 1명씩이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도 장학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장학증서는 오는 6월 24일 개막하는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수여하며 장학금은 그후 우편으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장학생 선발대회는 동창회가 5만 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 5만 달러를 한홍택 박사가 쾌척해 성사된 것이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무순).

- ▲정재원(조지아·조지아텍) ▲레이철장(뉴욕·시라큐스) ▲서희린(텍사스·유펜) ▲로지연(캘리포니아·프린스턴) ▲대니얼 디크먼(워싱턴·하버드) ▲미아 송(뉴욕·코넬) ▲이승우(캐나다 온

타리오·토론토) ▲제이든 림(캘리포니아·스탠퍼드) ▲안종윤(뉴저지·유펜)

▲조애나 최(캘리포니아·하버드). <관련기사=16~17면>

제 31차 평의원 회의 참가 200명 예상

사전 RSVP 당부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개막을 한달여 앞두고 행사 조직위원회는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주 동창회에 따르면 5월 10일 현재 호텔을 예약한 동문들은 모두 63명이다. 행사 위원회 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됐던 일상이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어 이번 회의에는 2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조직위는 6월 24~25일 회의 기간 중 참여할 행사를 동창회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rsvp@www.snuaa.org <관련기사=6면>

우크라이나 1만5,649 달러 모금

미주 동창회가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돕기 캠페인에 5월 15일 현재 총 1만 5,649 달러가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진(간호대 56) 동문은 "러시아의 침

공으로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TV뉴스에서 보고 무척 가슴이 아팠다" 며 성금을 보내왔다.

기부금은 국제어린이구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에 전달될 예정이다.

예술과 의술 사이에서
박혜란·백시환 동문
관련기사=4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피부에 주입하는 시대 열렸다” 서울 공대 여재익 교수 무바늘·무통증 약물전달기술 개발

이른바 ‘3월의 광란(March Madness)’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학농구 토너먼트는 그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2006년 ‘광란’의 주역은 단연 애덤 모리슨이다. 대학농구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곤재가 대학(워싱턴주)이 그 덕분에 스포츠 명문의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어깨까지 치렁치렁 내려오는 머리를 흔들리며 골밀을 파고드는가 하면 외곽에서 정교한 3점포를 쏘아대는 등 거의 신기에 가까웠다.

모리슨이 인기를 끈 것은 단지 그의 빼어난 실력이나 톡톡튀는 외모 때문만은 아니다. 스포츠 스타에겐 치명적인 당뇨를 앓고 있어서다. 그 시간만 되면 벤치로 물러나 인슐린 주사를 맞았다.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자 모리슨은 아픔을 참지 못해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중계 TV 카메라가 그 순간을 잡아 스크린에 띄웠다. 모리슨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글썽이는 여성팬들도 적지 않았다.

여니 선수처럼 프로농구(NBA)에 진출했지만 수시로 바늘을 찌러대야 하는 당뇨병자에게 프로의 벽은 너무 높았다. 몇 시즌 못뛰고는 은퇴를 ‘강요’ 당했다. 인슐린 주사 바늘 때문에….

모리슨이 지금 코트에서 뛰다면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K-테크 덕분이다. 주인공은 여재익 서울대 공대 교수다. 여 교수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자신이 개발한 무바늘·무통증 약물 딜리버리 기기를 소개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한 비대면 줌 화상 포럼을 통해서다.

그는 지난 2017년 서울대 벤처인 ‘바즈바이오메딕’을 창업해 해당 기술의 상용화에 뛰어들었다. 1초에 20회 가량 약물을 고속으로 쏘아 피부 층에 주입하는 첨단기술이다.

여 교수에 따르면 당뇨병자는 2040년 즈음 전 세계 6억4,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슐린 자가 주입기기 시장도 23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전공이 원래 로켓발사체 엔진 연구다. 소형 위성에 들어가는 엔진은 입자를 빠르게 방출해 추진력을 얻는데 이 같은 기술에 착안, 약물주입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여 교수의 기술은 주사 공포증이나 통증·출혈 등의 부작용은 물론 감염 위험성도 거의 없다. 무엇보다 개인이 손쉽게 자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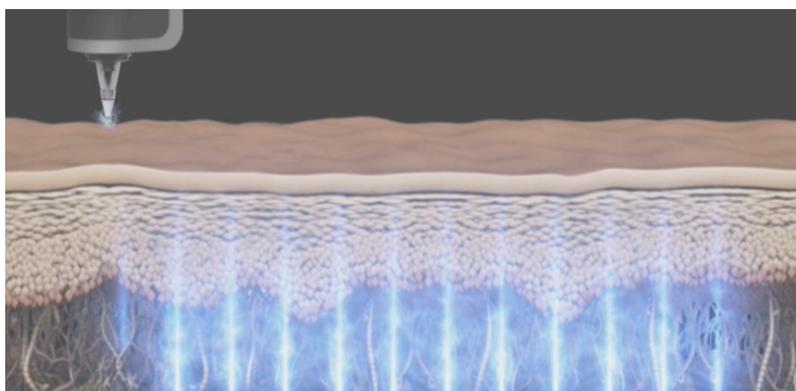
기존 주사에 의한 약물 주사는 정밀분사가 불가능하며 한 곳만 주입 가능하



▲ 여재익 교수가 지난 2017년 자신이 창업한 서울대 벤처기업 바즈바이오메딕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여 교수가 개발한 무바늘·무통증 약물 전달기기 ‘노보젯’.

▼ ‘노보젯’은 반복 정밀 분사로 넓은 피부에 약물주입은 물론 깊이도 조절할 수 있다.



로켓발사 추진력에서 아이디어 당뇨 환자용도 인슐린 전달기기도 미국에 R&D 센터, 현지법인 설립

고 또 조직 및 세포 손상과 함께 통증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바즈바이오메딕의 기술은 반복 정밀 분사로 인해 넓은 피부 면적에 연속 주입이 가능하고 또 통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모리슨같은 당뇨병자가 바늘에 대한 공포와 통증없이 간편하게 인슐린을 체

내에 주입할 수 있는 시기도 그리 멀지 않았다.

여 교수가 꿈는 기술의 핵심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표피, 진피층까지 깊이 조절이 가능하고 초당 20회 이상 투입할 수 있으며 노즐의 크기가 100um 정도로 가늘어 신경망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 주입

시 통증이 크게 완화된다.

현재 상용화된 기기는 노보젯(Novojet)이다. 피부·두피용 약물전달 미용 기기다. 표피층에 기능성 화장품 전달 기기로 개발됐다. 다양한 종류의 스킨부스터 약물 주입이 가능하다.

이제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피부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부스터젯(Boosterjet)은 두피(탈모) 관리 전용 기기다. 피부관리 클리닉이나 헤어샵 등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흔히 탈모방지 주사는 통증이 심해 중도에 시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부스터젯은 피부에 직접 대서 엠보싱을 만들거나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약물을 쏘아도 효과가 좋다. 물론 통증도 거의 못느낀다.

탈모인구는 한국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37억 달러에 달한다.

다음 큐어젯(Curejet)은 의료용 약물 전달 기기다. 표피·진피·피하지방(물광주사, 연어주사, 항체생성, 호르몬제) 등 의료 목적의 시술에 적용된다. 다양한 종류의 약물 주입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 출시가 예정돼 있다.

여 교수는 앞으로 애플도 만들어 출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바이오 미네랄(혈관강화, 피부재생, 활성산소 제거)을 비롯해 섬유아 세포(주름 형성의 원인)용 애플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즈바이오메딕 제품의 활용 범위는 미용기기부터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다.

무통증·무바늘 약물전달기기의 핵심 기술과 개발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미용시술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어느 가정이나 상비기기로 비치할 수 있게 대중화하는 것이다.

여 교수는 곧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현지법인을 만들고 또 미국의 우수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R&D 센터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방식약청(FDA)으로부터 관련 인허가 취득도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가 창업한 바즈바이오메딕이 K-테크를 이끄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동문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여 교수는 연구개발자이기 보다 이제 세일즈맨이 다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재익 교수는
UC 버클리 공대 학사
UCLA 공대 석사
일리노이대(어바나 샴페인) 공학박사

동창회 '창업 동아리' 발족 매달 수요일 모임... 투자자도 연결



김량국
생물교육 92

서울대 동문들의 창업 동아리(Entrepreneurship Network Meeting)가 지난 4월 13일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다.

미주 동창회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창업자 네트워크 모임은 이날 김량국(생물교육과 92) 박사의 사회로 참가 동문들의 각자 소개와 함께 회사 설립 과정을 설명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선 앞으로 김량국 동문이 간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매달

두 번째 수요일 오후 5시(서부시간)에 줌으로 화상대화를 갖기로 했다.

김 동문은 창업자 네트워크 모임 안에서 사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넣기로 하는 한편 투자유치를 원하는 동문들에게 프레젠테이션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동문은 "동문회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창업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과 격려, 나아가 투자와 동업, 협업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첫 모임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무순)

▲한홍택(공대 60, UCLA 석좌교수) ▲노명호(공대 61, 미주동창회장) ▲김량국(생물교육 92, 개념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이정훈(공대 85, 텔로팜) ▲김권식(공대 61, EVS) ▲박상래(공대 87, Starnex) ▲이광호(공대 71, Ion Medical) ▲고종성(화학교육 75, GEN-ESCO) ▲박상근(법대 75, 변호사).

줌 링크: <https://us02web.zoom.us/j/8052418735?pwd=Q0ljemlWS0t-2VTF6UHVC SXZvSU pDZz09>

문의: 김량국 (rkim@oakbioinformatics.com)

'이음 음악회' 남가주 공연 '포르테 듀오' · 음대 동문들 출연 6월 26일, 새누리 교회

서울대학교와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울대 학생들 해외방문 지원을 위한 모금을 위해 '서울대 이음 음악회'를 6월26일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성악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망라한 KBS 팬텀싱어의 우승팀인 서울대 음대 출신 '포르테 디 콰트로'에서 활약중인 '포르테 듀오' 성악가 김현수, 손태진을 초청, 남가주 동창회 음대 멤버들과 함께 6월26일 오후 5시 30분 로스엔젤레스의 대형교회 새누리 교회에서 '이음장학금 모금'으로 공연하기로 했다.

1부에는 남가주 음악인들로 구성된 플룻 최혜성, 하프 윤희진 동문의 2중주를 시작으로 피아노 퀸텟, 바이올린 박민정, 유키모리, 조나단 웨이, 첼로 김원선, 피아노 홍국희로 이루어진 피아노현악협연, 그리고 홍국희의 피아노 솔로 공연이 있다.

2부에는 서울대 음대 및 대학원 출신

의 '포르테 듀오'가 40분간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음악으로 독특한 무대를 남가주 한인들에게 선사하게 된다.

이번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남가주 음악회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데 박제환 남가주 동창회 회장은 이번에는 유명 성악가들이 한국에서 오는

만큼 신문, 라디오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한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음장학금은 해외방문 경험이 없는 서울대 학생들을 지원하여 해외견문을 넓히고 국제

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학금 모금으로 서울대와 미국을 잇는다는 의미로 '이음장학금'으로 명명하고 이들에게 단기 4주 해외방문 지원으로 1인당 약 5천달러씩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번 이음음악회에는 서울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LA를 방문해 참석하며 미주 동창회도 이 음악회를 후원기로 했다.



손태진



김현수

미주 동창회 장학생 선발 성적 · 리더십 · 에세이 등 위주 심사

이번 서울대 미주 동창회 장학생 선발대회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컸다. 동문이나 동문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주 전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 동창회도 한인사회 구성원 중 일부다.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1인당 1만 달러의 장학금도 파격이다. 주류사회를 포함하더라도 이 같은 액수의 장학금은 흔치 않다.

전국 규모로는 처음인데도 68명이나 지원해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당초 홍보가 제대로 안돼 '미달' 사태를 걱정했는데 이같은 우

려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심사는 제출된 이력서와 학업성적, 에세이를 토대로 지원학생의 학업능력, 인품, 성실성, 리더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 등을 평가했다. 재학중인 대학은 처음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했고 부모의 재정상황도 참고만 했을 뿐이다.

장학금 수상자는 '서울대 동창회 스칼라(SNUAA Scholar)'로 선발

돼 SNUAA Scholars Network 회원이 된다.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 상부상조하며 동창회의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수상자들과 상의해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모두 한인사회의 뛰어난 인재들

이어서 서울대 동창회의 외연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동창회는 앞으로 기부자 이름을 따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식(Named Scholarship)을 추진하고 있다. 적은 액수라도 많은 동문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장

래 가
축망되
는 학
생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심사위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는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했다. 이분들의 수고로 공정한 심사가 됐다고 자부한다.

심사위원: ▲강호석(상대) ▲남성우(공대) ▲김태환(자연대) ▲홍주선(상대) ▲황경순(공대).



한홍택
심사위원장

재학 중인 대학은 고려대상에서 제외 기부자 이름 딴 장학금도 적극 추진

이순신교육본부에 후원금 7월 4일 거북선 퍼레이드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가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Yisunsin America Institute)에 후원금 1,000 달러를 기부했다.

이내원(사대 58) 동문이 설립한 이순신 교육본부(간사: 이우진, 농대 86)는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거북선 퍼레이드를 펼친다.

이 동문은 거북선 퍼레이드는 미주 한인사회에선 처음으로 계획된 것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순신 교육본부는 오세경(약대 61) 동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서울대 동문들로부터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고 고마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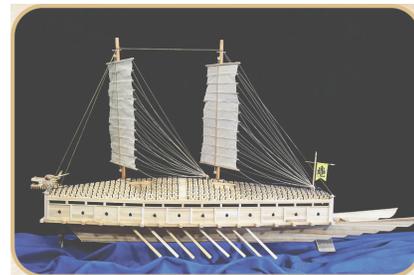
을 전했다. 몇해 전 작고한 안선미(농대 65) 동문의 유족은 이순신 교육본부에 6,200 달러의 성금을 보내와 감동을

줬다. 노명호 동창회장은 "커뮤니티 지원과 참여는 동창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다"라며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내원 동문은 사재를 들여 거북선 모형을 제작, 전국의 한국학교와 단체 등에 배부해 2세들의 정체성 교육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문의: 703-725-8910

이메일: naewonlee@yahoo.com



예술과 의술 사이에서

박혜란(작곡 73) ... 과학에 흥미 느껴 언니 따라 의대 진학 백시환(의대 93) ... 싱어송라이터의 꿈 되살려 앨범 내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말은 의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명언이다. 그가 살았던 시절에는 의술이 예술에 속했다고 한다. 예술을 의술로 해석하는 것이 생경하게 들리겠지만 육체적인 고통을 치료하는 의술과 정신의 치유에 영향을 주는 예술이 사람을 살

린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해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음의 두 동문은 프로필이 무척 독특하다. 의학의 길을 걷게 된 계기도 서로 다르다. 두 동문은 그러나 음악이란 예술의 장르에서 만난다. - 편집자.

박혜란 소아과 전문의

- 전공을 음악에서 의학으로 바꾼 계기는?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도 있지만... 나는 언니따라 의대에 간 경우다. 언니가 먼저 볼티모어의 병원 레지던트로 왔다. 나 역시 피바디 음대(Peabody Conservatory of Music)에 유학과 언니와 함께 지내게 됐다.

언니를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의학에 흥미를 느꼈다. 문득 어렸을 적 공대 화학 공학과를 나온 아버지를 따라 실험실을 구경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었다.

- 언니도 음대 지망생이었다는 얘길 들었다.

맞다. 언니는 피아노를 엄청 잘 쳤다. 언

이 있다. ‘의학은 과학이기도 하지만 예술(art)이기도 하다.’ 나도 이 말에 공감한다.

의사는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에 따라 약을 다르게 처방한다. 환자의 증상 뿐 아니라 감정의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같은 약이라도 환자에 따라 부작용과 반응이 다르다. 1+2=3이 아니고 4도, 5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특히 음악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인간 바탕에 깔린 감정을 남보다 더 잘 느끼고 알 수 있는 점이 의대에서 공부할 때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돌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 ‘음악의 길을 계속 걸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지?

의학도 예술, 음악이 진료에 도움돼 무엇이든 좋아하는 일 해야 후회없어

니 자신도 음대 갈 생각이 있었다. 언니는 그러나 부모님의 권유로 의대로 진로를 바꿨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언니는 현재 일리노이 대학 소아 알러지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 음대 출신이 어떻게 의대에 들어갔나?

피바디에서 1년을 보낸 후 학부과정부터 다시 공부했다. 샌디에고 대학에서 의대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며 4년을 보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비롯해

물리 화학 수학, 심지어 신학 등 평소 관심이 많았던 과목을 수강해 교양의 지평을 넓혔다.

- 의대는 어디를 갔나?

다시 동부로 가 조지 워싱턴대 의대에 들어갔다. 첫 해는 정말이지 고생이 많았다. 엄청난 양을 외우며 공부하느라 힘들었다.

특히 인종간의 편견이 예상외로 심각했다. 흑인 환자가 흑인 의사의 실력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백인 의사를 고집하는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불편했다.

- 음악이 의대 공부에 도움이 됐는지?

물론이다. 의사들 사이에 흔히 하는 말



박혜란(음대 73) · 김충현(문리대 72) 동문 부부. 남가주 오렌지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박 동문은 성가대를 지휘하며 여전히 음악인의 삶을 살고 있다.

곡을 멋지게 쓰는 작곡가들을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음악인으로 성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아쉬움을 내려 놓기로 했다.

오랜 기간 성당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편곡까지 한다. 내가 음악을 전공했기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음악은 의술 못지않게 내겐 중요한 삶의 일부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라는 말을 하고 싶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직업을 여러번 바꿔보는 사람들이 많다. 의대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레지던트를 여러 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부군 김충현 박사는 문리대 72학번으로 부부가 동문이다.

취재=김양희(음대 77)

백시환 신경내과 전문의

“언젠가 나를 버릴거야/ 언젠가 나를 잊을 거야/ 기억은 흐려지고/ 매일 똑같기만 한데/ 지새우는 밤길에도/ 갈 곳없는 이곳에/ 거울 속에 누군가가/ 날 바라만 보네/ 난 있다고 생각지마/ 이미 맘은 떠났네.”

‘러브송’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작사·작곡은 놀랍게도 신경내과 전문의. 바로 백시환(William S. Baek · 남가주 업랜드) 동문이다.

백 동문은 지난 2018년 1집(Walk Again)에 이어 2020년에는 2집(Humanity)을 냈다.

첫 앨범에는 치매를 비롯해 파킨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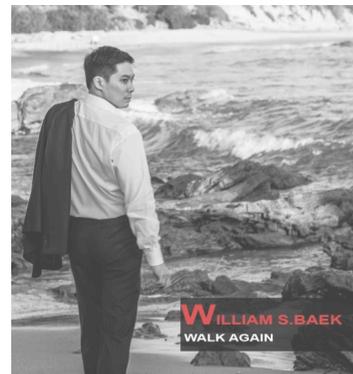
백 동문은 사실 고등학교 시절 싱어송라이터를 꿈꿨다. 하지만 아버지, 삼촌, 사촌까지 모두 의사인 집안에서 가수의 길을 가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래서 싱어의 꿈은 의사가 된 뒤로 미뤄졌다.

대학에 진학해선 의대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연주했다.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틈틈이 곡을 짓고 노랫말을 다듬었다. ‘언젠가 꼭 꿈을 이루겠다’면서다.

지난 2005년부터 다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1집에 수록된 ‘러브 어게인’은 그때 쓴 노래다.

백 동문은 다중언어에 능통하다. 미국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래에 담아 스페인어 등 다중언어로 불러 ‘공감’



백시환 동문의 꿈은 싱어송라이터. 지난 2018년 1집(Walk Again)에 이어 2020년엔 2집(Humanity)을 내놔. 내년에는 3집을 발매할 계획으로 요즘 성악 레슨을 받고 있다.

루게릭병, 뇌졸중 환자의 마음을 담았다. 장르도 여러가지다. 중풍 환자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슬픈 발라드. 반면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노래는 테크노 댄스곡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백 동문은 팝컨트리, 라틴 레게, R&B, 재즈 등 다양하다. 노래도 영어와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로도 부른다.

곡의 주제는 신경학적 질환 뿐 아니라 죽음과 이혼, 결혼, 종교, 지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채롭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논문이 아닌 노래로써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는 백 동문은 “음악이란 매개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더 치유와 용기를 얻었다고 털어냈다.

내년쯤엔 3집을 낼 계획이다. 결혼을 주제로 한 곡, 아베마리아를 댄스풍으로 편곡한 곡 등이 실릴 계획이다. 그래서 요즘 성악레슨을 받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서 태어난 그에게 영어와 한국어는 모국어나 다름없다. 4년 동안 공부한 스페인어는 이제 통역없이도 대화가 가능하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해 쉽게 배웠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혼자서 노래 연습을 하고, 특히 외국어 공부할 때가 너무 좋아요. 프랑스어, 이탈리아,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번갈아 가며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은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에 나오는 ‘달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를 체코어로 연습중이다. 언어를 통해 문화를 알아가는 기쁨이 크다면서다.

백 동문의 노래는 Spotify, iTunes, Amazon, Youtube 등의 주요 매체에 다 올라갔다.

(참조: <https://www.youtube.com/channel/UCSkXiMovm3XkDSmGtiT-kUpg>).

취재=박은경(시계탑 편집위원)



메트 박물관이 소장한 18세기 조선시대의 10폭짜리 문방도. 책, 벼루, 먹, 붓꽃이 등 문방구류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전자, 꽃병 따위의 방안에서 쓰는 물건들을 배합해 그렸다.

구창화 동문(응용미술학과 65) 뉴욕 '메트' 박물관 최초의 투어 가이드 1년여 훈련과 오디션 통과해 자격 얻어

구창화(미대 응용미술학과 65) 동문에게 미국은 뉴욕이고 뉴욕은 미국 그 자체다. “(유학 차) 처음 받을 디딘 순간 뉴욕과 일생일대의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구 동문. 한 세기의 절반을 뉴욕에서만 살고 있어서인지 생각하는 것조차 뉴요커를 빼달았다. 뉴욕의 예술을 호흡하고 이를 소개하는 것이 구 동문 일과의 전부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터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메트) 박물관이 바로 그의 분신이다. 맨해튼 5번가에 있는 '메트'는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소장품만 거의 300만 점에 이른다. 구 동문은 '메트'의 첫 한국어 투어 가이드다. 올해 30년 짜다. 동창회보 취재팀이 구 동문을 화상으로 만났다. - 편집자.

- 어떻게 '메트'와 인연을 갖게 됐는지?

결혼초 남편이 멤버십을 들어줬다. 자주 미술을 접하며 문화의 여유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문득 미국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전 되값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봉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2년 이상 기다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도 고작 1주일에 한 번이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메트의 자원봉사기관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다.

- 한국어 투어 가이드는 어떻게 하게 됐나?

1992년 LA폭동이 계기가 됐다. 한인타운이 표적이 돼 불타는 장면을 TV 뉴스로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후 갈등도 서로의 문화 차이를 몰라 관계가 악화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박물관에 한국어 투어 가이드를 자청했다.

- 누구나 신청하면 가이드가 될 수 있나?

처음엔 한국인 관람객이 없으면 어쩌나 하며 주저했다. 당시 비영어권 투어 가이드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그리고 일본어 등 5개 언어만 있었다. 중국어 가이드도 없었던 때였다. 끈질기게 설득해 납득시키자 회장은 선뜻 나를 훈련에 포함시켜줬다.

- 그럼 곧바로 가이드가 됐나?

아니다. 1년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오디션에 합격해야 한다. 가이드 선발과정은 무척 까다롭다. 그래서 대학시절 이후 덮어뒀던 미술 서적을 다시 펼쳐놓고 공부했다. 전문용어가 많아 애를 먹었지만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다행히 모든 과정을 통과해 한국인 최초의 투어 가이드가 될 수 있었다.

처음엔 한국어 투어를 찾는 사람이 없어 혼자 무료하게 허송세월을 할 수 밖

에 없었다.그래도 입소문이 났는지 한국 분들이 찾아왔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94년부터는 한국어 투어가 안내문에 정식 인쇄돼 널리 알려지게 됐다. 참으로 뿌듯했다.

- 처음엔 고생이 많으셨겠다.

나 혼자여서 아프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려 애를 썼다. 기를 썼다

이 좋아하신다. 가령 고대 이집트 아멘호테프 3세 시절의 사크메트 여신은 사자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의 공포를 상징한다. 한국 사찰 입구에 있는 무시무시한 사천왕상이 수호자 역할을 하듯 사크메트도 공포를 물리치는 여신이라고 해설을 해주면 재밌어 하신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를 입은) 분들이 종종 눈에 띄인다.

-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은?

모네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다. 또 접근이 쉽다고 생각하는지 현대미술에도 관심이 많다.

한시간 가량 '하이라이트 투어'를 안내해드리는데 제한된 시간내에 되도록 다양한 문화예술품을 보여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다.

- 한국갤러리는 규모가 어떤가.

일부 관람객들은 중국이나 일본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며 한국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실망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몇년 전엔 신라 특별전시회를 개최해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최근엔 BTS도 메트를 찾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 서울대 동문들만 별도로 안내해 줄 수 있나.

물론이다. 타주에 계신 동문들에게는 그러나 버추얼 투어(Virtual Tour)를 권해 드린다. 제가 직접 한국어로 안내해 드린다.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 요즘 수요가 많다.

- 초등학교에 '육이오'와 자유의 소중함 교육도

이외에도 구 동문은 부군을 도와 '육이오 재단(625Foundation.org)'을 운영하고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비영리 단체다.

걷기 캠페인(Liberty Walk)을 펼쳐 얻은 수익금을 초등학교나 도서관에 기증한다. 지난 2월에도 미시시피주 리플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희생한 장병들에 감사하며 그렇게 얻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학생들에게 일깨워줬다.

문의: changwhakoo@gmail.com



구창화 동문이 한국인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30년째 가이드를 하고 있는 구 동문은 요즘은 '버추얼 투어'로도 안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은 7명, 매주 화·수·금 3일 봉사 카테일 드레스 입고 온 한인에 '감동' 타주 거주 동문엔 '버추얼 투어' 권해

고 해야 할지. 지금은 한국어 가이드가 나를 포함해 7명이나 된다. 팬데믹 이전에는 1주 3일(화·수·금)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금은 금요일 하루만 가이드를 한다. 일상을 회복하면 머지않아 화·수·금 체제로 되돌아 갈 것 같다.

-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문화와 비교해 설명하면 관람객들

언젠가 젊은 여성 한 분이 예쁜 카테일 드레스를 입고 오셨다. '어떻게 드레스를 입고 올 생각을 했느냐'고 슬쩍 물어봤다. '미국 올 때 필요할 것 같아 갖고 왔는데 메트에서 최고의 미술품을 대하는 것이 좋아서 드레스를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분의 문화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실, 박물관에는 그런 (드레스

제 31차 평의원 회의

오세정 총장 등 참석, 호텔 예약 서둘러야

'포르테 디 콰트로' 특별 출연 ... 축제 분위기

2022년 6월 24일(금)~26일(일)
Pacific Palms Resort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10일 현재 등록을 완료한 평의원 및 종신이사는 모두 62명에 이른다. 5월말 쯤이면 200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크게 완화에 따라 참가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미주 동창회도 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키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호텔 예약

평의원 회의 기간 중 일정 숫자의 객실이 서울대 동문들을 위해 이미 예약돼 있는 상태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예약하면 된다. 전화: 1-800-524-4557
링크: <https://pacificpalmsresort.com/seoul-national-university-alumni-association/>

회의 일정

6월 24일(금)

11:00 am ~ 02:00 pm 등록 및 리셉션
02:00 pm ~ 05:00 pm 세미나
06:30 pm ~ 10:30 pm 장학금 수상자 발표 및 디너

미주 동창회가 주관한 제 1회 전국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 선발대회에서 최종 확정된 10명의 수상자들을 소개한다. 수상자들은 전국(캐나다 포함)에서 선발된 관계로 이들을 모두 초청하기가 어려워 개인 마다 2분 가량 비디오 클립을 제작, 프레젠테이션할 계획이다. 줌을 이용해 수상자들과 화상대화 시간도 갖는다. 이어 호텔측이 준비한 딜럭스 디너가 제공된다. 주훈(음대 69) 동문 등이 출연해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6월 25일(토)

09:00 am ~ 04:30 pm 평의원 전체회의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평의원 전체회의가 열린다. 주요 안건은 동창회비 인상, 지부(미시간, 캐나다 등) 개설 요건, 투자위원회 구성, 10년 후의 동창회 변화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간대 배우자 및 게스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LA 카운티 미술박물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 LACMA) 관람 등이 예정돼 있다.

10:00 am ~ 04:00 pm 배우자 및 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06:00 pm ~ 10:30 pm 환영만찬 및 축하공연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이희범 직전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한국의 현·전직 총동창회장과 상임 부회장들이 대거 참석한다.

6월 26일(일)

12:00 pm ~ 06:00 pm 골프@Pacific Palm Ike Course
05:00 pm ~ 09:30 pm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음악회
LA한인타운에 소재한 남가주 새누리 교회에서 열린다. 공연참석을 원하는 동문들에게는 교통편이 제공된다.

*6월 24일과 6월 25일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실 동문은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ua.org)에 들어가셔서 어느 행사에 참여하실지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강사: 장지혜(음대 94)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로 재직중인 장 동문은 '현대음악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해설한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음악박사학위를 취득한 장 동문은 현대음악은 결코 지루하거나 난해하지 않다며 이날 강연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청강사: 이정훈(공대 85) 서울대 교수

모교 공대 교수인 이 동문이 자신이 창업한 '텔로팜'을 소개한다. 기계공학 교수인 이 동문은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 파밍(smart-farming)'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반도체 센서를 이용한 농법으로 물의 흐름과 광합성, 영양소 흡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식물의 성장에 최적화된 테크닉을 시연한다. '텔로팜'은 이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유명 농장과 계약을 맺는 실적을 올렸다.



초청강사: 임종열(미대 61)

2세들의 뿌리교육을 위해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문화유산'을 출간해 관심을 모았던 임 동문이 '기술삽화(technical illustration)'의 실재를 소개한다. 사진보다는 삽화를 그려 넣은 것이 2세대에게 더 어필할 것이라고 판단해 직접 펜화로 책을 만들었다.



환영만찬 및 축하공연: 김현수·손태진

포르테 디 콰트로(Forte Di Quattro) 남성 사중창 멤버 가운데 김현수·손태진 두 음대 동문이 특별 출연해 크로스오버의 진수를 들려준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지난 2017년 jtbc 팬텀싱어에서 우승,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이다.)

수학박사 정용운의 좌충우돌 미국 정착기 포토맥 강변에 산다는 것은 신의 축복



정용운
농생대 81

텔라하시 소재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텍사스 A&M 대학과 위스콘신대 의과대학에서의 포닥(박사후) 생활. 지나온 세월들이 그 지역 날씨와 많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박사 공부를 시작하기 위하여 정착한 텔라하시에서의 첫 날, ‘아, 이것은 뭐지’ 하고 그 도시로 이사온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찜통 더위와 조우합니다. 그 후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저는 텍사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복병은 있었습니다. 5분 이상 시내 활보가 불가능한 레이저로 쏘는 듯한 햇살의 그 따가움. 그 때

서의 한 학기 티칭이 끝난 후 운 좋게도 그 해 여름, 남부 탐파에 위치한 한 크리스천 스쿨의 수학 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인근에 클리어와트라는 유명 비치이 있던 탐파에서도 불행하게 제 자신을 비취줄 동료나 친구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2021년 6월, 수학교사라는 직업을 멀리하고 15시간을 운전하여 직장도 많고 교포들도 많이 사는 워싱턴 지역 페어팩스 카운티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페어팩스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1995년 가을, 워싱턴 남부 포트 벨보아 부대에 4개월 연

타고 내려 올 때, 저는 동이 트는 문밖을 수백 번 쳐다 보았습니다. 그 곳을 피하여 간 곳이 텔레스 공항 인근의 한 아마존 창고 BWI1. 처음에는 FDX에 비하여 지상낙원같이 보였지만 그곳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놀랍게도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BWI1에서 일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오가는 따뜻한 조크와 위트,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을 보면서 인류의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2021년 겨울, 워싱턴의 어느 눈 덮인 산속에 갇히면서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제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헛바퀴만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는 운전자들마다 모두 차에서 직접 내려 뛰 도와줄 것 없느냐 하고, 인근 주택가 사시던 한 할아버지는 일부러 길에 나와서 추우니 자기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타인들에게 뭘 더 도와주고 싶어 안달난 눈부시게 아름다운 워싱턴 사람들.

저는 동문회 중창단에서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음치인 제가 베이스를 처음 시작하려다 보니, 그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보려는데, 그 공연 계획을 안 저희집 아이 엄마가 큰 아이와 함께 그 공연만은 반드시 보러가겠다고 참가를 통보하고 맙니다.

이 난처한 상황에 중창단 선배님들께서 전략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최대한 줄여라. 모두 조용할 때 적막을 깨뜨릴 그 소리만 잡아내면 돼.” 마침내 결전의 날은 왔고 마의 시간 10분이 짜깁 짜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하여 객석이 레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박수칠 사람까지 다 섭외했으니 안심하라고 독려하시던 지휘자 함은선(음대 77) 선배님. 마침내 그 헬시간이 에 누리없이 찾아왔고 그 헬도 끝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이제 5월도 왔고 워싱턴도 서서히 초여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곧, 포토맥 강변 카페 44에 가서 와인 한 잔 시켜 놓고 그 조약돌을 제대로 빚어보려 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포토맥 강변에 산다는 것은 신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

‘고드름 추위’ 밀워키에서 탐파로 다시 유턴 동문회에서 찾은 ‘인간다움’ ... 내 삶의 활력소

부터 ‘쇼생크 탈출’ 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 1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밀워키에 오기 전 그 때까지는 그것도 ‘진짜’ 는 아니었습니다. 5분만 바깥에 노출되어도 얼굴에 고드름이 불고 동상을 체크해야 하는 1월의 밀워키 날씨! 특히 10월 말에 시작하여 4월 말까지 이어지는 6개월간의 밀워키 겨울. 설상가상으로 이 도시는 흑백이 100% 분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답을 가져왔습니다. 2020년 1월에 불어온 봄바람. 플로리다 게인즈빌 산타페 대학에서 파트타임 조교수직 오퍼가 도착하였습니다. 10년 전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던 그 플로리다 땅이 다시 축복의 땅으로 그 색깔을 변경하는데는 딱 10년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페어팩스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산타페 대학에

수를 오면서 페어팩스라는 도시를 처음 들어보게 됩니다. 부대 마을 산책 도중 수풀 사이로 우연히 보게된 장대한 강

포토맥. 워싱턴 나이트 클럽에서 밤새도록 춤도 추며 버지니아비치에서 하루종일 과도 타기를 같이 즐겼던 한 아리따운 미 여군과의 추억이 묻혀있던 곳. 포토맥 강변에는 보이는 것이 사랑이었고 행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온 페어팩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

다. 아파트 렌트비를 급히 마련하기 위하여 시작된 막노동일. LSG(기내식 배달 회사) 코디네이터, FDX 우편물 분류원, 아마존 드라이버, 아이스크림 공장 QA, 아마존 창고 종업원 등 걸리는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FDX 첫 야근 8시간, 처음으로 저의 사전에 ‘지옥’ 이란 단어를 첨가하게 됩니다. 수천개의 우편물이 컨베이어를



내가 즐겨 찾는 포토맥 강변의 카페 44. 이곳에 산다는 것은 신의 축복, 그 자체다.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가듯이 인생에도 항로가 있습니다.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거짓말은 할 수 없는 정직한 사람들이 가는 길. 삶에도 하이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가을 두 아이를 모두 대학에 보냄으로써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트랜스포터로서의 임무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꿈도 못꾸었던 소설 습작을 비롯해 이모작 부업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소설은 가칭 ‘포토맥 강’ 입니다.

바둑을 즐기던 저로서는 삶이란 ‘반집 승부 게임’ 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누구나 보는 수는 거의 비슷한데, 월계관을 쓰는 최종 승리자는 학력이나 자산, 지위 같은 겉옷이 아닌 ‘타인도나 정도는 묘수를 본다’ 는 상상이 가능한 보통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티를 덜내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범한 조약돌로 살려는 한 범인의 노력과 인고의 세월을 문학화 해보려 합니다.

꿈이 활자화 되면 기념으로 지하철 노숙자님들을 모시고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맥주도 마시면서 그분들께 몇 시간이나 행복한 시간들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 제도는 그분들까지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 8군 영내 항공사진 정보단 군무원으로 사회 첫발을 내디딤니다. 미국 대학원에서는 생활비까지 제공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켄터키한 대학으로 이주하여 대학원 공부를 시작합니다. 세월은 흘러 2010년 5월,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똑똑한 건강 이야기

서울대 병원 교수가 알려주는 다이어트의 정답 술은 칼로리 덩어리, 탄수화물을 적 취급하면 안돼

건강한 체중을 위해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음식의 양, 종류,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식 양을 조절해 칼로리 섭취량을 관리합니다. 직접적으로 먹는 양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음식별 칼로리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특정 영양소만 섭취하거나 식사 패턴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섭취하는 저탄고지, 지중해 다이어트, 구석기 다이어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식사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하루 먹고 하루는 굶는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이는 섭취시간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이 과생되어 나왔습니다.

이렇듯, 다이어트의 종류는 다양하고 다이어트와 관련한 정보도 넘쳐납니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 헛갈렸던 다이어트 정보를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원혁태 교수와 내분비대사내과 조영민 교수의 Q&A 형식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

Q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A 아닙니다. 간혹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

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몸에 염색소가 있으면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서 살이 찌 수 있습니다. 둘째, 물속에 플라크톤이 많으면 물고기처럼 살이 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물을 먹고 살이 찌 수 없습니다.

Q 살을 빼려면 하루에 물 2L 이상 마셔야 한다?

A 아닙니다. 물론 식사 전에 물 한잔을 마시면 많이 못 드실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이어트를 할 때 흔히 따라오는 부작용인 변비를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Q 살 빼려면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

A 다이어트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주 많이 드시면 결국 살이 찌겠죠.

Q 아메리카노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A 아메리카노는 열량이 높지 않습니다. 5kcal 정도 되고요. 봉지커피는 대략 50 kcal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페라테, 캐러멜 라테 등은 보통 150~200kcal 정

도됩니다. 이들에 비하면 아메리카노의 열량은 낮습니다.

Q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A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지방이 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탄수화물을 나쁘게 몰아붙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중에는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있으며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호박, 고구마 등은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주의할 점은 좋은 탄수화물이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인 설탕, 밀가루, 백미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허한 칼로리 술, 술은 살이 안 찐다?

A 아닙니다. 공허한 칼로리라는 말에서 '공허한' 이 제로 칼로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술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없죠. 다시 말해 술은 칼로리 덩어리입니다.

웬만한 술 한병의 칼로리는 밥 한 공기과 같습니다. 또한 술을 마실 때 보통 기름진 안주들을 곁들이기 때문에 살이 찌니다.

Q 셀러리, 토마토, 곤약은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

A 식이섬유도 많고 물 함량도 많기 때

문에 살이 크게 안 찹니다. 100g을 기준으로 오이는 9kcal, 셀러리는 12kcal, 토마토는 20kcal, 곤약은 10kcal입니다. 밥의 열량은 150kcal 정도로 이와 비교했을 때 오이, 셀러리, 토마토, 곤약의 칼로리 밀도는 낮습니다.

Q 매운 음식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A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더워져서 지방을 태운다, 살이 빠진다는 속설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Q 비만치료의 또 다른 방법은 약물요법입니다. 약물요법을 위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약물복용을 위해선 조건이 필요합니다. 체질량지수(BMI) 30을 넘거나 식이요법을 해도 BMI가 27 이상이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비만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일부는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담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Q 약물요법을 하면 식이요법을 중단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약물요법만 하게 되면 살 빠지는 효과가 감소합니다. 약물요법을 통해 많이 5kg을 뺄 수도 있죠. 하지만 약을 먹었으니 마음대로 먹자고 생각해서 살이 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드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면서 약을 드셔야 합니다.



바른 식생활 통곡물 자연식의 기본이해

민형기
농생대 67

우리 몸은 평균적으로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 세포 하나하나 바로 나의 소유주이므로 나의 몸은 60조의 소유주로 구성된 무한한 대우주이다.

니체는 몸의 위대성에 대해 "몸의 현상은 사람의 의식, 정신, 사유, 의지보다 상위체계다"라고 100년도 훨씬 전에 갈파한 바 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진정한 진리인 것이다.

내 몸의 세포는 하루에도 수천억개가 소멸되고 다시 태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소멸과 탄생을 부지불식간에 경험하면서, 산술적으로 10개월이면 내 몸은 거의 모두 새롭게 바뀌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셈이다. 새로 태어나는 세포는 우리가 날마다 이용하는 음식물로 만들어진다.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은 조화로운 자연의 이치이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건강과 인성을 결정하며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사람에게 조화로운 바른 음식이 바로 통곡물 자연식이다. 통곡물 자연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통곡물은 먹을 수 없는 겉껍질만 도정해 버리고 배아(눈)와 겨는 최대한 남긴 곡물이다. 배아와 겨 부분에 곡물의 생명영양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고, 나머지는 백미나 흰 밀가루 같은 당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백미, 보리, 밀, 수수, 메밀, 율무 등은 단지 밥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종류에 따라 왕겨만 벗긴 통

곡에서 10~30% 정도를 더 깎아낸 것이다. 통곡물 구분상 쌀은 현미로 부르고 보리, 밀, 수수, 메밀, 율무 등은 '통'자를 접두사로 붙여 부르기도 한다.

둘째,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되는 식자재를 중심으로 조리한다. 우리에게 우리 땅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우리 몸

에 조화로운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백리 밖의 물은 마시지 말라"고 했다.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되는 각종 식재료는 영양분과 생

명력이 충분하며 값도 저렴하다. 또한 GMO 식품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셋째, 친환경, 유기농, 자연산 식자재를 사용한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우리 농촌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

고 있다. 각종 제초제, 화학비료, 농약으로 오염되어 있는 관행 농산물은 "안 먹는 것이 가장 잘 먹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자.

넷째, 통곡물과 채식 식재료 80% 이상, 동물성 식재료 20% 이하로 조리한다. 사람의 몸에 조화로운 음식은 곡·채식 중심으로 동물성을 일부분 곁들이는 것이다. 치아의 구성, 소화기관의 구조와 정서 등 생리적 조건이 그러하다.

다섯째, 우리 전통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전통 밥상은 다양한 발효의 지혜와 음양오행의 기운을 담아 차려 내는 완벽한 생명 살림 밥상이다.

여섯째, 온 생명 전체식이다. 가능한 식재료의 잎, 줄기, 뿌리, 껍질까지 전체를 먹는다. 멸치, 실치 등 작은 종류의 생선도 이상적인 전체식이다. 채소의 경우 땅의 풀과 바닷풀(해조류)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해당된다. 전체식은 모든 생명요소를 가장 온전히 섭취하는 자연식이다.

<청미래유기농 대표>





지난 4월 23일 관악회가 주관한 바베큐 파티에는 100여 동문들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다음 바베큐 모임은 9월로 예정돼 있다.

뉴잉글랜드 관악회 야유회 “모두 ‘같이’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바디방가 빠뚜 비롯해 100여 동문 참석 ‘성황’

관악회(또는 관악클럽)는 대체로 90년대 이후 관악캠퍼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동문들이 모여 결성한 모임이다. 1950~1980년대 학번이 주를 이루는 기존 동창회의 고령화가 갈수록 빨라짐에 따라 관악회가 앞으로 동창회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동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의 동창회에선 대부분 관악회가 결성돼 있다. 젊은 세대

여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탓에 일부 동창회에선 모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 전액 부담을 해주고 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유경·음대 72)는 후자의 경우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희(인문대 73) 동문이 뉴잉글랜드 관악회 회장의 행사 후기를 회보에 실어 많은 동문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 편집자.

참 길었습니다. 보스턴의 지난 겨울은, 끝없이 변신하며 여전히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려는 코비드와 공존해야 했기에 더욱 길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담담히 이겨내고자 하는 동문들의 마음이 모인 덕분인지, 지난 4월 23일(토) 보스턴 근교 워터타운에 위치한 아스널파크에서 제 2회 관악회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거지말처럼 따스하고 청명한 봄 날씨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9월 70여 명이 참석한 1회 모임보다 훨씬 많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모두가 풍성한 한식 케이터링과 메인 요리인 숯불 바베큐 식사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90년대 학번 이후의 서울대 학사·석사·박사 졸업생으로 구성된 차세대 청년 모임인 관악회는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소속 동창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구성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특성 상 참가비 없이 전액 동창회의 후원금으로 바베큐 야유회를 주최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초대해 아늑하고 포근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학생과 주재원을 중심으로 상당히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보스턴 한인 사회에서도 ‘서울대는 역시 동창회 모임의 질도 최고’라는 타대학 동문들의 부러움 섞인 평가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 동의서를 요청드렸음에도 전원 기꺼이 수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동문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자유롭게 식

사 후 참석자들을 무작위로 8개 조에 배정해 처음 만난 동문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분야와 연령대를 가진 동문들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MIT 박사과정 주미송(재료13) ▲Asimov Mammalian Synthetic Biologist 정해원(생명02) ▲MIT 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김현아(재료 13) ▲노바티스 제약 연구원 강병



푸짐한 한식 케이터링 덕분에 모임이 시종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이날 경비는 전액 동창회가 부담했다.

행사경비는 전액 동창회 부담 봄 가을 두차례 가족동반 모임

학(수의 01) ▲하버드 의대 면역학과 박사후연구원 홍유진(생명12) ▲터프츠대 경제학과 교수 백재원(경제 09) ▲MIT 생명과학과 박사후연구원 장연지(생명 04) ▲하버드 의대 시스템생물학과 인스트럭터 오승은(물리 99) 동문 등 8분의 다양한 연령대와 전문분야에 속한 훌

륭한 조장님들의 진행 아래 한 시간 반 동안 2차례의 테이블 셔플링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처음 모임에 오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많은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조장님들과, 또 선발대로 도착해서 숯불을 준비하고 모임 내내 맛있는 고기를 공급해주신 바베큐팀 동문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악회 가입 커

번 참석했었다”며 “사노피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이번 관악회 모임에 참석해 많은 분들과 인사 나누며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한 주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소감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분은 바디방가 빠뚜(재료 11) 동문입니다. 석사 졸업 후 도미해 보스턴의 Thermo Fisher, Labcorp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콩고 출신의 아프리카인 동문으로 이번 바베큐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관악회의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인덱스를 확 올려 주셨습니다.

또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김유경 회장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주셔서 젊은 동문들과 폭넓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15년만에 다시 만난 고교 동창들끼리의 수다, 품에 안긴 갓난 아기 및 공원 놀이터를 접수한 2세 자녀들의 모습들이 다채롭게 어우러지며 공원 잔디밭을 수놓았습니다.

바쁜 동문들의 일상을 고려해 3시간 미만으로 진행된 짧은 일정 가운데서도 91학년부터 19학번까지 모두가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우며 30년의 격차를 포용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이뤄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관악회는 매년 2차례 가족 동반 야유회를 공식적인 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차기 행사는 9월 경 있을 예정입니다. 각자가 작은 용기를 내어 참여해주실 때, 바쁘고 치열하며 외롭기 쉬운 미국 생활을 동문애로 따스하게 채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관악회와 동문회의 앞날을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할 때 ‘가치’ 있습니다.

취재=신진우(농생대 04 · 관악회장)

뉴욕 동창회 첫 대면 모임 80년대 학번 뭉쳤다... '86세대' 발족



뉴욕 동창회(회장 금영천·약대 71)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모임을 가졌다.

지난 4월 19일 뉴저지주 가연에서 열린 이사·임원 연석회의에서는 오는 6월 24일 남가주에서 개막하는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참가 및 포상 동문들과 관련해 집중 논의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무순).

▲정해민(법대, 상임고문) ▲홍종만(공대, 골든클럽 회장) ▲성기호(약대, 이사장) ▲손갑수(약대회장) ▲오순문(사범대, 감사) ▲송우길(대학원회장) ▲조상근(법대, 장학위원장) ▲금영천(약대, 동창회장) ▲연영제(공대 회장)

▲손대홍(미대 회장) ▲임창우(사회대 회장) ▲김병순(사회대, 사무총장).

한편 이날 '86세대'(80년대 학번으로 60년대 출생 동문 모임) 발족을 위한 준비 모임이 함께 열려 관심을 모았다. 금영천 동창회장은 "앞으로 어떠한 작은 단과대 모임이나 작은 동아리 모임이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모인 '86세대'는 다음과 같다(무순).

▲김기택(수의대 81) ▲고은영(자연대 81) ▲이창길(자연대 85) ▲최윤(약대 81) ▲강병승(축산 86) ▲김병순(사회대 82) ▲허유선(생과대 83).

취재=허유선(생과대 83)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 토너먼트 챔피언에 고민석... 100여명 참가 '성황'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제환·문리대 75)가 올해 처음 주관한 골프 토너먼트가 지난 4월 30일 로스세라노스 컨트리 클럽에서 100여 동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너먼트는 노명호·이경희·이영일·김상찬·박정모·박인희 동문을 비롯해 권봉성·주진희·김홍묵·김희경·한효동·성주경·양수진·이기준·김병연 등 많은 동문들이 홀 스폰서를 자청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골프장을 찾았다는 한 여성 동문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가족같이 아늑하고 훈훈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서 남자부 챔피언은 고민석(농대) 동문, 여자 부문에서는 Mrs. 서치원이 우수상, 그밖에 남자 장타상은 장준(문리대), 여자 장타상은 Mrs. 장준이 영예를 차지했다.



Dr. 이덕송의 유머 코너

과민성 장 증후군

레지던트 두 명이 점심을 먹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안짱다리에 두 팔을 뉘틀고 고개를 기묘하게 꼬면서 걸어왔다. 얼굴은 푸르스름 하면서 진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레지던트 1: 안됐어. 뇌성 마비로군.

레지던트 2: 천만에. 편두통성 간질이야.

잠시후 두 사람 옆에 멈춘 남자가 말을 더듬으며 하는 말.

"저~ 급한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농구 코치

심리학 교수가 정신건강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자,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분 동안 미친듯이 화를 내며 고향을 치다가 자리에 앉아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그러자 뒤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대답했다.

"농구 코치입니다." (의대 54)

명복을 빕니다

'컴퓨터 전도사' 양인회 동문 타계 '뉴욕에서 만나요' 소통의 장 마련

뉴욕 한인사회에서 '컴퓨터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양인회(농대 58) 동문이 지난 4월 17일 타계했다. 향년 82세.

4월 20일 플러싱의 제일장 의사에서 열린 장례예배에는 150여 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양 동문은 지난 20여 년 뉴욕지부 동창회의 IT위원장으로 봉사하는 등 동창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미주동창회보 제작은 물론 '뉴욕에서 만나요' 카페를 운영하며 동창회와 동문들을 하나로 엮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고인은 골든클럽 컴퓨터 연구원 강사로 수고하며 동문들과 뉴욕거주 한인들을 위해 컴퓨터 기술 전파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양 동문은 서울대 졸업 후 일본 시험기기 제작사 '쉬마스'에 농업기기 담당으로 취업한 것이 계기가 돼 컴퓨터를 익히게 됐다. 60년대만 해도 '쉬마스'는 첨단기업이었다. 대학과 농업진흥청 실험



실에 이 회사 제품이 납품되면서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첨단기기에 눈이 뜨이게 됐다고 한다.

고인은 지난해 3월 말기암 판정을 받아 "제가 몸 하나 관리를 못한 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의 글을 올려 동문들을 숙연하게 만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 동안 운영해 온 '뉴욕에서 만나요' 카페의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을 못내 아쉬워했다.

양 동문은 "긴 세월, 하루도 몇 차례씩 들러 정력을 쏟던 카페를 누군가가 바통을 이어 운영해주신다면 눈 감기가 훨씬 부드러울 것 같다"고 말해 주위를 울컥하게 했다. 양 동문은 "카페지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배우게 된다"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컴퓨터 강의를 하는 실력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양 동문은 부인 양선심 여사와의 사이에 양필경, 양보경씨 두 아들이 있다.

양인회 동문을 애도하며

신응남 제 15대 미주 동창회장

인생은 연습이 허용되지 않는 단막극입니다. 누구나 단 한번의 리허설도 없이 엄숙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오릅니다. 인생이란 무대에서 반듯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아닌 나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 구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민족의 상속자야! 길이 빛날 서울대학교.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관악의 후예답게, 당신께서는 일찌기 정보화 시대의 개막을 예견하며 남다른 열정으로 동창회에 IT 시스템 구축과 교육에 앞장을

서시며, 20여 년 동안 동문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열어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무대에서 당신의 배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름답게 연출한 우리 모두의 잊지 못할 동문이며 친구입니다.

시 귀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 말하리라" 라고 시인이 노래했듯이 당신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서울대 동문들과 함께 했던 반세기의 소풍이 아름다웠더라"고 노래하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못다한 꿈을 그곳에서 '서울대 천국 컴퓨터 클래스'를 통해 새롭게 펼치십시오. 지금은 안타깝지만 당신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영면을 누리십시오.



지난 3월 20일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사회가 2년만에 처음으로 대면 모임을 가졌다.

시카고 동창회 첫 대면 이사회 90대 선배들에 서울대 로고 컵 증정 동아리 모임 활성화... 낯시 동호회 결성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승주·간호대 69)가 지난 3월 20일 한인문화회관에서 2년만에 처음으로 이사회를 대면모임으로 열었다.

회의에 앞서 노윤진 박사(음대 03)가 이소정 교수(음대 86)의 피아노 반주로 첼로를 연주, 큰 박수를 받았다.

모두 42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예산안 통과에 이어 한경진(상대 59) 동문의 장학기금 현황 보고가 있었다.

이외에도 관악클럽(회장 김동엽·사대 86)과 골든클럽(회장 윤봉수·간호대 69) 등 동창회 산하기관과 각 동아리 리더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세종문화회와 한인문화회관도 올해 시행될 프로젝트를 발표,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희(의대 69) 동문은 세종문화회, 김윤태(의대 63) 동문은 한인문

화회관이 추진 중인 사업들을 각각 소개했다. 두 단체는 동창회와는 별개 기관이지만 동창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서울대 동문들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승주 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기존 동아리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낯시 동호회 등 새 동아리의 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90세 이상 선배 동문들을 격려하는 이벤트. 송재현(의대 46), 문병훈(사대 47), 김성범(상대 50) 동문에게 서울대 로고가 인쇄된 주석 맥주컵을 증정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올해 새로 선출된 이사는 다음과 같다(무순).

- ▲김사직(상대) ▲이경미(미대) ▲신순천(대학원) ▲송재현(의대) ▲김영준(문리대) ▲안인숙(간호대)

취재=이준수(공대 76)

젊은이들의 소통창구 '스와재' 스페인어·재테크 배우며 정보교환

'스와재'는 2년째 매주 목요일 저녁 스페인어 공부와 재테크,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시카고 동창회의 젊은세대를 위한 동아리 모임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모임이 줄어들면서 동문 부부들이 스와재의 줌 화상모임을 통해 쌓인 이야기를 나누고 답소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카타르에서 온 86학번 이원선 동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온라인으로 조인한 82학번 신태수 동문 등이 합류해 인



젊은 세대의 소통창구인 '스와재' 모임. 타주에서도 참여하는 등 관심이 높다.

기를 더해가고 있다. 4월부터는 'Buying Your First Home'이란 책을 갖고 내집 마련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스와재 회원들의 소감을 소개한다.

▲신태수 동문: "스와재를 하면서 선 후배 가족간에 더욱 끈끈한 정을 느끼는

것은 물론 스페니시를 공부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크다. 북클럽을 통해 경제공부를 하면서 소양도 넓히고 꿈도 키워보려 한다."

▲조연아 동문: "목요일 저녁마다 좋은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다. 무엇보다 (텍사스) 델라스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저희에게 유일한 소셜이다."

▲이원선 동문: "중학교 시절 이후 가장 재밌는 모임이다. 동문들에 강추한다."

▲봉윤식 동문: "애 셋 키우느라 정신 없는 저희 부부가 함께 하는 유일한 활동이다."

▲황찬주 동문: "요즘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스와재가 있어 위안이 많이 된다."

종신이사 코너

이강홍(상대 60) 동문 “이익의 사회환원은 기업의 책무”

가방 제조업은 지난 70년대 한국 수출산업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낸 대표적인 업종이었다. 산업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 수출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강홍(상대 60·크로바상사 회장) 동문은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쌓으면서 가방 제조업에 관한 한 파이어니어로 꼽힌다. 전세계 유명 브랜드인 샘소나이트 가방기업을 운영하며 한국의 산업발전에 헌신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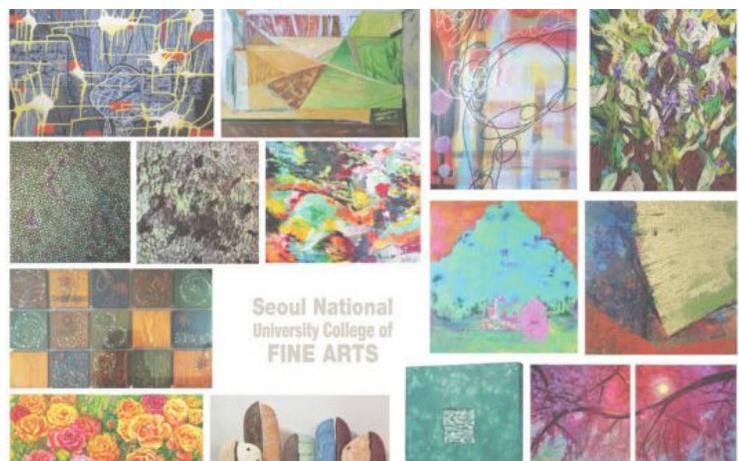
80년대 초에는 상공부로부터 북미무역진흥단장으로 위촉돼 LA는 물론 시카고, 뉴욕, 캐나다의 밴쿠버와 몬트리얼 등지에서 교역전시회를 개최해 미주 수출시장개척

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년 전엔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해 부의 사회 환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 동문은 "사업차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국가 산업발전에 근간이 되는 교육에 이익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 선배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기부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동문은 최근 미주 동창회 종신이사에도 가입, 동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문은 하와이에서 21년째 살고 있다.



남가주 미대 동문전 및 옥션 5월 31일까지 S 갤러리

연말 탁상달력 제작

남가주 미대 동문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 옥션이 지난 5월 14일 LA 한인타운 인근의 S-갤러리에서 열렸다.

남가주 미대 동문회(회장 한석란)이 주관하는 전시회를 겸한 옥션은 올해로 6 회째를 맞았다. 출품작은 40여 점에 이른다.

이날 판매된 작품들은 탁상 달력으로 제작돼 연말 동문들에게 제공된다. 한 회장은 "옥션 목적은 좋은 가격으로

로 작품 소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판매 수익금은 사회와 모교에 환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시 및 옥션에 참가한 동문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무순).

- ▲성수환 ▲심영자 ▲서동현 ▲신정연 ▲신혜자 ▲백혜란 ▲현혜명 ▲박영구 ▲강영일 ▲장원경 ▲한석란 ▲김경애 ▲이명규 ▲김구자 ▲오성주 ▲황영애

한편 전시회는 5월 31일까지 S-갤러리(5151 Romaine St., Los Angeles)에서 열린다.

서울대학교 이음음악회

서울대와 미주를 잇는 서울대학교 이음음악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서울대학교 동문 공연(피아노, 바이올린 등)과 포르테 디 콰트로(김현수, 손태진) 공연이 진행됩니다.

서울대학교 이음음악회는 미주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마련된 음악회입니다.

서울대학교 이음음악회로 조성된 기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인재로 성장시키 위한 'SNU 이음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포르테 디 콰트로 공연 | 김현수 서울대학교 성악과(05입), 손태진 서울대학교 성악과(08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 공연 | 박민정, 김원선, 홍국희, 최혜성, 윤희진, 모리 유키, 조나단 위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17:30~19:30 LA 새누리교회

주최 서울대학교 남가주총동창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후원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문의 서울대학교 남가주총동창회(박제환 회장 323-229-3369, 김희경 총무 310-971-0534), 서울대학교발전기금(김인중 국장 213-435-1974)

김재훈(공대 72) 보잉기술연구소 Senior Technical Fellow

“가보지 않은 길을 생각하며 공학과 함께 한 반세기”

당초 꿈은 법관... 큰 형님의 충고와 권유로 진로 바뀌

중고등학교 시절 나의 장래 희망은 법관이였다.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거창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부친께서 사다주시는 책들, 주로 동화와 위인전 단편 문학전집을 위주로 독서를 했고, 커서는 특히 문화역사 철학 그리고 인물 평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 1 학년에서 2 학년으로 진급할 때 문과(인문계)와 이과(자연계)로 구분하던 때였다. 인문계이었던 내가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아홉 남매중에서 아버님에 버금가는 권위와 위엄을 가지셨던 큰형님의 충고와 권유 때문이었다.

문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큰형님은 내가 공과대학에 진학을 원하셨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확실했다. 60년대 말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인재는 다른 아닌 바로 과학기술자라고 말씀하셨다. 판결문 하나도 법과 신념에 따라 독립적으로 쓰지 못할지 모르는 어려운 정치상황에 있는 법관보다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과학기술자가 되기를 바라셨다.

‘정치학과’ 큰 형님의 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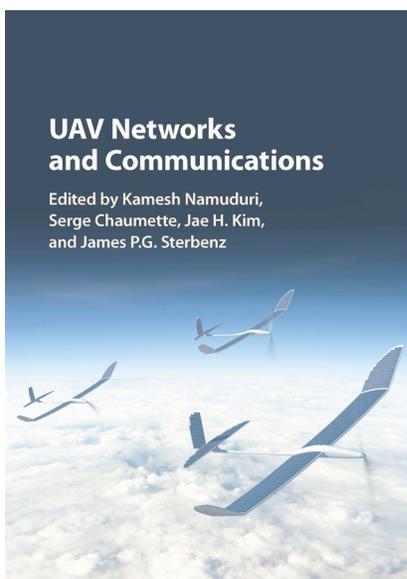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돌아보더라도 오늘날 지구촌 국력의 척도가 된 과학기술력과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판도를 볼 때, 그리고 아직도 국력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해볼 때 형님의 미래를 보는 해안과 선견지명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일찍 작고하신 형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온다.

공릉동 캠퍼스로 통학을 하며 남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대학 생활을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생활했던 공대기숙사 생활이후로 졸업, 군복무와 유학으로 계속 연결되어 결국은 그때 이미 본가로부터 독립한 셈이 되었다.

40년 인생의 동반자가 된 아내도 이때 만났다. 대학원 재학시 학부 후배(현재 서울공대 교수) 소개로 만났고 마침 모교 전기공학과 20년 선배님이신 장인 어른이 은사이신 우리 교수님을 통해 적극적인 압력(?)을 넣어서 만났지 1년여만에 결혼하게 되었다.

대학원을 졸업하던 해 3월 진해 해군통제부내의 사관후보생 교육대에 입소했다. 그렇게 시작된 18주라는 결코 끝날 것 같지 않던(마치 18년같은) 기나긴 세월의 교육을 받고 해군장교로 임관한다.

이때 고난의 훈련 기간을 통해 나는 해군장교로서 명예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고 이는 한 평생 내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 임관후 다시 4주간의 초계함 선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조기경보기는 물론 인공지능을 이용한 드론 등 무인기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군사기술관련 강연을 하고 있는 김재훈 박사. 원래 법관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큰 형님의 권유로 공대로 진로를 바꿨다.

상에서 해상실습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해군사관학교 공학교수로 부임할 수 있었다.

군 복무가 끝날 무렵 대한전기협회 박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 미국학교와 유학 수속과정에서 수신인 주소가 진해(Chinhae)로 쓰여진 우편물(입학허가서)이 엉뚱하게 중국(China)을 경유, 몇 달씩 늦게 배달되기도 해 무척 애를 태웠던 기억이 있다.

나는 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Florida)에서 광통신소자 및 시스템 분야를 전공했다. 당시 연구조교 월급으로 \$1,000을 받았다. 학생 아파트 월세는 3베드룸 기준 \$170에 불과해 생활에 별 어려움은 없었다.

칼텍 JPL 연구책임자

박사학위를 마친 80년대중반 미국 경기가 안좋아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내 경우는 두 분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칼텍 제트추진연구소(JPL), 보잉기술연구소, EG&G Reticon 회사 등 여러곳에서 동시에 잡오퍼를 받는 행운으로 학교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많은 고민 끝에 JPL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다.

미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Senior Scientist로서 다른 연구원들과 특히 칼텍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주중, 주말없이 실험실에서 밤 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며 2년만에 연구책임자(Task Manager)로 승진하였으니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었다.

칼텍에서 5년여의 연구경험을 쌓은 후 한국과 미국 대학교의 교수직도 고려했지만 결국 전에 잡오퍼를 받았던 보잉연

분야로는 최고직급이고 보잉에서 근무하는 수 만명의 과학기술자들이 평생 꿈꾸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있는 셋째형집 조카가 모교 법대를 졸업하는 즈음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다고 공대 선배에게 푸념을 했던 모양이다. 공대 선배왈, “너희 법대생들은 한번만 고생하면 평생을 비교적 쉽게 살지 않나? 그러나 우리 공대생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추느라 평생동안 공부를 해야하는데 누가 더 힘드냐?” 라고 타 이르며 용기를 분돋아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내가 겪은 ‘진정한’ 과학기술자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것을 알기때문에 나는 젊은 후배 과학기술자들에게 늘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며 격려하곤 한다. “과학기술자로서의 길을 일생의 진로로 선택하려 한다면, 일생동안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을 해야한다.”

자기계발 중요

어쨌든 그 선배의 덕분인지 몰라도 조카는 이듬 해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해 일간 신문에 이름을 날렸다. 미국에서 이런 조카의 소식을 뒤늦게 들으며 한없이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가보지 못한 길을 생각하며 많이 부러워 하기도 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는가?

이제 반세기에 이르는 나의 공학 인생을 마무리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위해 차분히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다. 은퇴를 하게되면 그동안 모아놓은 좋아하는 책들과 벗을 삼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라도 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김재훈 박사는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교수
플로리다대학 공학박사
칼텍 JPL 선임연구원
보잉기술연구소 기술임원
워싱턴대학 겸임교수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Life Senior Member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39대 회장
워싱턴주 한미교육문화재단 10, 11, 12대 이사장



발행인에게

**유익한 글 많아
설교자료로도 활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동문입니다. 매달 동창회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설교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유익한 글이 많습니다.

최혁(뉴저지 · 음대 72)

**평의원 회의에
마음이 설레네요**

오늘 인터넷으로 호텔예약을 마쳤습니다.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머무를 예정입니다.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그리운 벗들을 만날 수 있어서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박평일(버지니아 · 농생대 68 · 종신이사)

더욱 활발한 동창회 되었으면

안녕하세요. 이메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해지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진(LA · 음대 99)

**개선된 장학생 선발로
한인사회 기여했으면**

미주 동창회의 장학생 선발대회에 훌륭한 대학생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최종 선발에 심사숙고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UCLA 학생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한명도 뽑히지 못해 지역별 고려가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된 장학생 선발제도로 서울

대 동창회가 미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전원일(샌디에고 · 의대 77)



**대통령과 동창회장을
나란히 실어 '의아'**

4월호 2면에 실린 김종섭 신임 총동창회장 관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동문이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동창회장을 어떻게 똑같은 비중으로 다뤘는지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동창회장을 키우는 것 같아 좀 당황했습니다.

마이클 리(LA · 문리대 62)

많이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회보가 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읽을 거리도 많아졌고요. 편집과 인쇄 모두 달라진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박상원(음대 69 · 전 뉴욕 동창회장)

‘간호대 기부천사’ 서진 동문 우크라이나에 선뜻 3천 달러 성금



미주동창회에서 우크라이나 돕기 모금을 시작한지 2개월,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 보내온 성금이 1만 달러를 넘어 서더니 어느날 3,000 달러 수표가 도착했다. 아무런 사연도 없이 우크라이나 성금으로만 적혀 있었다. 학번도 없고, 기부자 이름도 수표 위에 적힌 부부 이름이 전부였다.

성금 접수자는 동창회 명부와 인터넷을 뒤지며 ‘서성범’을 찾았지만 좀처럼 나오지가 않았다. 성금접수자가 신원확인에 고생을 한 이유는 기부자가 ‘서성범’이 아닌 부인 ‘서진’이었기 때문. 서진 - 간호대(56학번) 동문. 결혼전 이름은 흥진이다.

서진 동문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기부했다. 주변에 알리지를 않는다. 모교 서울대에도 틈틈이, 소리없이 기부한 액수가 무려 20만 달러에 육박한다. “학교에서 온 전화를 남편이 받고 놀랐어요. 남편한테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얘기 안했다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남편몰래 일을 저질러요.” 서진 동문이 모교에 기부했을

때 웃으며 한 말이다.

서진 동문은 간호대 졸업후 미군 간호장교로 입대했다. 미군야전병원 M.A.S.H. 에서 7년간 근무했다. 하와이의 미군 육군병원에서도 근무했다. 그 후 1973년 미국에 정착했다.

“나이 들면서 재산을 어떻게 좋은 일에 사용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침 모교에서 선한인재 장학금 모금을 한다는 브로셔를 봤어요. 저소득층 인재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이어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 곳에 기부할 곳들이 있겠지만 후배들, 특히 가난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모교는 물론 사회와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에 10만 달러 첫 수표를 써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며 모은 돈,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힘들게 꾸려 온 재산이다. 그후로도 3차례 모교에 기부금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성금도 마찬가지였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금을 어디로 보낼까 망서리는 중에 미주 동창회의 우크라이나 캠페인을 알게 됐다. 망서리지 않고 미주 동창회로 수표를 써서 보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죠.”

서진 동문은 1남 2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고, 현재 로스엔젤레스 남쪽 어바인에 거주하고 있다.

취재=김인중(농생대 74)

‘한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 이흥우 · 배정희 동문 결혼 60주년

뉴저지에 살고 있는 이흥우(공대 50) · 배정희(사대 54) 동문 부부가 결혼 60주년, 곧 ‘다이아몬드 혼식(diamond jubilee)’을 맞는다.

1962년 배 동문이 고등학교 교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수학선생이 대학 후배를 소개해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배 동문은 “어디를 가도 학생들과 마주치는 바람에 그때마다 슬쩍 자리를 피하면 남편은 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몇 시간이고 그냥 기다려 줬다”며 연애할 때의 짜릿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을 되돌아 봤다.

배 동문은 “60년 전의 기다림이 몸에 배어있는지 남편은 지금도 잘 기다려주는 나의 운전기사”라며 고마워했다.

부부의 60년 결혼생활의 비결은 뭘까. “내 인생의 좌우명이 있어요.

‘한 번 친구는 끝까지 친구’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가능한 한 양보를 하면서 우정을 유지하는 거야 말로 부부관계에서는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기본이 된다”며 또 한번 프렌드십을 강조했다.

취재=허유선(생과대 83)



서윤석 동문 ‘팔봉 문학상’ 수상 상금 2천 달러, 올해 벌써 두 번째 ‘경사’



서윤석(의대 62 · 버지니아) 동문이 포토맥 포럼이 선정하는 제 8회 팔봉 문학상 수상자에 뽑혔다.

상금은 2,000 달러. 시상식은 오는 11월 19일 ‘자랑스러운 워싱턴이언’ 행사

에 맞춰 열린다. 지난달 배정희 문학상 특별상 수상에 이어 올해 두번째 받는 상이다.

지난 2010년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한 서 동문은 현재 의대 동창회 뉴스레터인 ‘시계탑’ 편집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황해도 개성 출신인 서 동문은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미주연합회 워싱턴 지부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연세대학교 미주 동창회가 선정한 ‘윤동주 문학상’ 특별상을 받았다.

취재=한정희(미대 8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웃의 체인링크 펜스 설치로 골머리 경계선 안쪽에 있다면 동의 없이 철거

〈Q〉안녕하세요? 서울대 미주 동창회 보에 나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읽고 반가운 마음에 질문합니다.

이웃이 컨트랙터를 고용, 집수리를 하면서 오래된 드라이브웨이와 마당에 새 콘크리트를 깔아 우리집 보다 지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라파티 경계선을 따라서 촘촘히 고무나무(ficus tree)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우리집 지붕 보다 높고 낙엽이 지붕홈통(gutter)에 쌓입니다. 겨울에 비가 오면 그 집 마당의 물이 저의 집 좁은 골목으로 쏟아 집니다.

현재 그 집을 사서 이사 온 사람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제게 drain 설비를 하라고 하여 French Drain을 설치 하였음에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서있는 체인링크 펜스는 저희 프라파티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인링크 펜스 밑으로 60 피트 길이의 야트막한 담을 쌓아서 제 집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시정부 측에서는 공사중인 건축물은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드라이브웨이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재산에 속한 나무 역시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웃과 대화로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기다립니다.



〈A〉우리 나라 속담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웃 사 람이 마치 사촌 관계처럼 친하게 지낸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겠지요. 이렇게 이웃에 사는 사람이 원만하고 따뜻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살만한 세상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선 이웃집은 2015년 12월쯤 UBO Corporation이 구입해 약 1년 4개월 후 현재 주인에게 115만 달러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 타이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UBO는 낡은 집을 싼 값에 구입해서 수리해 좀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투자업자(미국 부동산 용어로 Flipper)인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 법에 따르면 서로 이웃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반이나 기초가 변경될 때, 이웃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쪽에서 땅의 지반을 낮게 파내어서 이웃한 땅이 무너지거나 또는 한쪽에서 땅의 지반을 높게 만들어 서 비가 올 경우 흐르는 물이 이웃한 땅

으로 침범하게 될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동문님의 경우가 바로 두번 째 사례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의 드라이브웨이를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그 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 부동산의 물이 동문님의 부동산쪽으로 흘러들게 된 것입니다.

동문님의 말씀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문님에게 알아서 하수도 시설을 만들라고 하였다 하는데, 이미 수리된 집을 구입한 이웃집 주인으로서는 사실 별 성의를 안 보이고 있는 상태로 보여 집니다.

나무가 정확히 프라파티 경계선에 심어졌는지, 어느 한쪽 프라파티 경계선 안쪽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선에 담장을 쌓을 경우 통상적으로 이웃 경계선과 우리쪽 경계선의 중간에 세우기 때문에 양측 모두 동일한 거리의 땅을 양보하게 되고 비용도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포기하거나 혼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진행하게 됩니다.

동문님의 말씀대로 체인 링크 펜스가 우리쪽 부동산 경계선 안쪽으로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거 펜스를 철거하거나, 또는 담장으로 교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체인링크 담장은 그대로 두고 그 아래쪽으로 담장을 쌓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선 상대방과 체인링크와 나무를 철거하고 새로 블록담장을 설치하자고 제의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일 체인링크 담장과 나무를 철거하고 블록 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ficus tree도 필요하지 않고, 낙엽이나 이웃집에서 물이 넘쳐들어 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중하게 제의를 해 보시고, 대답이 없으면 흐르는 물이 넘쳐들여와서 입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고 담장을 쌓겠다고 통보하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로써 통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제일 나중에 생각해야 할 방법이겠지요.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한태호 변호사**(문리대 75 · 213-639-2900)

화제의 동문

"테슬라, 애플 주식으로 기부할게요"



이태영 (법대 56)

“주식으로 드릴까요?”

지난 4월 초 미주 동창회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태영(법대 56) 동문이었다. 스타벅을 기부해 동창회를 돕고 싶다는 내용이다. 주식 기부는 처음이어서 이호진(간호대 74) 총무는 어리둥절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동창회 재목이 CPA이니까 물어보고 선배님께 연락드릴게요.”

이태영 동문의 주식기부는 동창회 임원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 “대체 이 선배님이 누구예요” 모두들 궁금해했다.

이 동문은 1만 달러에 상당하는 주식을 동창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골드 이사’에 해당하는 액수다. 테슬라와 애플 등 요즘 ‘핫’한 테크 주식을 주겠다고 했다. 테슬라의 경우 연말쯤 주식액면분할(stock split)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반등하면 1만 달러가 2배로 점프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동문이 미국 땅을 밟은 해는

1965년. 인디애나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으나 경제학 쪽으로 전공을 바꿨다. 박사학위를 받고는 메릴랜드대학에서 경제 및 마케팅학과 교수와 학과장을 지냈다. 종신교수직까지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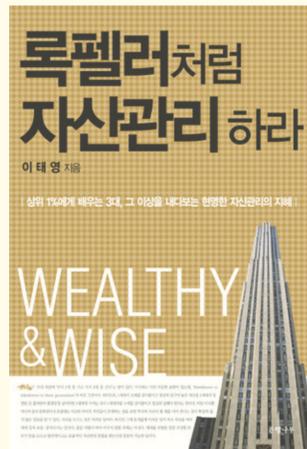
한때 한국에 나가 롯데그룹 운영본부의 국제관계 담당이사로도 활동했다. 그리고는 무역회사인 PTC 인터내셔널을 창업, 성공적인 기업인의 삶을 살았다.

최근엔 웰씨&와이즈(Wealthy & Wise)사를 설립해 선진 가문 자산관리 시스템인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를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동문이 출간한 ‘록펠러처럼 자산관리하라’는 한 가문의 3대가 100년 이상 든든하게 잘 살 수 있는 자산관리의 원칙과 노하우를 담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이 동문에 따르면 ‘패밀리 오피스’는 한 집안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뿐 아니라 인적·지적·사회적 자산까지를 포함해 목표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투자 관리와는 차별화된 개념이다.

이 동문은 록펠러처럼 한 개인이 일군 부는 사회적 기부행위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서울대 동문들도 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금년말 메디케어 신청 대상인데 ... 기저질환 있는 경우 '메디갭' 권유

〈Q〉금년말이면 65세가 돼 메디케어에 가입해야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주변에선 '어드밴티지 플랜'을 들라고 하는데 주치의의 정해야 하는 등 제약조건이 많아 망서려집니다. 사실 아직은 심각하지 않지만 제가 기저질환이 있거든요. 무슨 보험에 가입해야 안심이 되나요?

〈A〉동문님의 경우는 '메디갭(Medi-Gap)'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메디케어 보충보험(Supplement Plan)이라고도 하는데 어드밴티지 플랜의 단점을 모두 커버해 줍니다.

메디갭의 장점은 메디케어와 계약이 돼있는 미국내 모든 의사, 병원들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폐암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분야 세계 최고의 병원인 텍사스 휴스턴의 MD 앤더슨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지요.

메디갭은 동문님처럼 처음 메디케어 수혜자가 됐을 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6개월 전 구입할 때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 경우 과거나 현재의 병력을 묻지 않고 무조건 가입시켜 줍니다. 이를 '개런티 이슈'라고 합니다.

메디갭은 미국내 주요 보험사가 거의 모두 판매합니다. 파트 B 프리미엄외에 추가로 보험료가 들어가지만 여유가 있다면 메디갭 가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디갭은 그러나 파트 D, 곧 처방약 보험은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도움말 주신분=**정세근**(자연대 82, 메릴랜드 CNN 종합보험 703-785-8467)



영예의 수상자



정재원
(조지아·조지아텍 컴퓨터 사이언스)

사이버 시큐리티 오피서가 내 장래 희망

사이버 테러는 사적·공적 영역을 막론하고 매년 손실액이 1조 달러나 되는 국가적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최대의 송유관 운영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랜섬 공격은 전국의 공급망을 뒤흔들어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내게 늘 성실과 도덕심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시큐리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이번 여름 나는 한 거대 테크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돼 보

안담당 엔지니어로 일할 기회를 갖게 되는 행운을 안았다.

내 장래 희망은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의 겹을 매우는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가 되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연방 사이버 시큐리티 & 인프라 보안국(CISA)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취득해 근무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도움과 기회를 주고 싶다. 나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동창회 스칼라로 선정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송나래
(뉴욕·코넬대 미국학)

‘불평등학’ 공부를 계기로 법조계 진출 굳혀

내 주전공은 미국학(American Studies)인데 부전공은 불평등학(Inequality Studies), 아시아인 아메리칸학, 법과 사회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졸업 후 진로는 법 쪽으로 이미 정한 상태다.

대학 캠퍼스에서 통번역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생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해프닝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한국의 문화와 한복의 아름다움, ‘햇님과 달님’ 등 동화 따위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었는데 영어가 안 됐다. 내

이름 나래(Narae)를 어떻게 영어로 발음하는지조차 몰랐었다.

내가 다양성과 평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8년 가을학기 때 불평등학 강좌를 듣고 나서다. 뉴욕에서 성장한 나는 일찍부터 다양한 인종 집단에 노출돼 있었는데 사회적 인종적 불평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뉴욕사회복지국과 국무부, 화이자 제약회사 등 여러 곳에서 인턴을 하며 불평등의 현주소를 알게 됐다.. 취미는 한국영화와 스틸러물 감상, 그리고 여행을 즐긴다.



로지연
(캘리포니아·프린스턴대 분자생물학)

장애인 권익신장은 내 궁극적인 목표

내가 처음 봉사한 곳은 적십자사다. 취약한 커뮤니티에 화재경고 알람을 설치하는 일을 맡았다. 고등학교 때는 공군 주니어 ROTC 프로그램에 들어가 현혈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을 벌였다.

인근 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특히 스페니시 사용 성인들을 위한 ESL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헬스 관련 서비스 외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도와주고 있다.

내 장래 희망은 헬스케어 분야다. 나는 장애를 갖고 있는 남동생이 있다.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늘 계단은 몇개나 되는

지, 핸드캡 파킹에서 건물 입구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늘 살펴보는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다.

이같은 집안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 나는 ‘아시아인-아메리칸 장애 이니셔티브’를 결성해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와 자원들을 필요한 가정에 소개하고 있다.

나는 장애인 권익신장이 헬스케어 쪽으로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장애인 차별, 이른바 ‘에이블리즘(ableism)’이 임상에서는 물론 내 주변의 커뮤니티에 확산되지 않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안중운
(뉴저지·펜실베이니아대 컴퓨터 사이언스)

‘죽의 천장’ 깨트려 아시아계에 더 많은 기회를

컴퓨터 사이언스가 내 주전공이고 수학이 부전공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돼 로봇/테크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내 인생 목표다. 나는 자동화와 인간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진전이 어떻게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질적 통제를 개선시키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다.

자동화된 로봇이 인간의 감독없이도 서로 협업해 적응할 수 있는지도 내 연구 목표 중 하나다. 이같은 로봇은 건설업계나 광산, 도로 건설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인간이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앞으로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내 목표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시아계 학생들이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테크 산업 쪽에는 아시아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층부, 즉 매니저급에는 소수계의 진입이 쉽지 않다.

이른바 ‘죽의 천장’(bamboo ceiling)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매니저가 되면 아시아계 학생들의 멘토가 돼 학교는 물론 기업현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죽의 천장’을 깨트리겠다는 것이 내 목표다.



이승우
(캐나다 온타리오·토론토대 경제학)

한국경제 공부하면서 정체성 되찾아

당초 대학에서 나의 선택은 경제학과 국제관계, 정치학이었다. 그러나 사실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어떤 커리어를 택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대학의 글로벌 공공정책 학부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내 정체성을 되찾았다.

지난 2학기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한국의 금융과 환율 그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됐고 동시에 내 한국어 구사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알게 되면서 한국경제 연구에 큰 매력을 갖게 됐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긍심

이 내게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되찾아 준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고취된 나는 앞으로의 커리어를 세계은행(월드뱅크)이나 OECD 등 다국적 금융기관 진출로 목표를 잡았다.

아카데미 쪽은 솔직히 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학계보다는 경제의 실재를 담당하는 국제기관에서 일하며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성공사례를 도입,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번 서울대 장학금은 내게 큰 영예다.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영예의 수상자

NGO · 글로벌 보건기구에서의 근무가 목표



레이철 장
(뉴욕 · 시라큐스대 공중보건)

내 전공은 공중보건이다. 현재 3학년 재학중이지만 대학원에 진학해 보건과 사회를 집중 공부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내 목표는 보조의사(physician assistant)가 돼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것이다.

부의 편중은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들이 안고있는 공통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미국서도 수백만명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학위를 취득하면 보조의사로서의 내 경력을 적극 활용해 해외에서 공중보건 분야에서 일할 계획이다. 앞으로 글로벌

보건기구에서 일하며 헬스케어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다루고 싶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처럼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한 목표가 되겠다.

현재 캠프 케셈(Camp Kesem)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부모가 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다. 시라큐스의 한인교회에서 영어목회 담당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서울대 장학금을 받아 내가 목표하는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

아빠는 한국인, 엄마는 인디언 원주민



제이든 림
(캘리포니아 · 스탠퍼드대 인종학)

나는 캘리포니아의 샌타로사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인디언 원주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와 어머니는 캘리포니아 인디언 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인디언 부족 청소년 홍보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봉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당시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로부터 전국 예술 및 휴먼리티 상을 받았다. 당시 시상식에서 나는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해 호평을 받았다.

아빠의 부모님들은 고국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

만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들이다.

내 양가 조부모님들은 공통점이 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문화적 유산이야말로 내게는 큰 버팀목이자 성공의 지렛대다.

첫 돌잡이때 나는 펜과 종이를 잡았다고 한다. 부모님에 따르면 내가 학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모두들 기뻐했다.

내 장래 목표는 학계 진출이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차별과 장애물을 제거해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지키려 노력



조애나 최
(캘리포니아 · 하버드대 분자생물학)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 언니와 함께 이민을 오셨다. 나는 LA에서 태어난 시민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성장하면서 소수계로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체성을 갖게 돼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

부모님이 집에서 항상 한국말을 쓰라고 하셔서 한국말에 능숙한 편이다. 부모님에 고마울 따름이다.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해 한국계로서 언어와 문화 등 아이덴티티를 간직할 수 있었다. 하버드에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한국역사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과학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생물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중학교에 진학했을 무렵이다. 엄마가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어려운 의료용어를 쓰는 병원 스태프들과 대화가 어려웠다. 그때 동양인 의사 한 분이 입원실을 찾아왔다. 한국말로 엄마의 상태를 알려줬다. 그 선생님은 시간날 때마다 찾아와 우리를 다독여 줬다. 눈물이 나도 고맙웠다. 그날 나는 굳은 결심을 했다. ‘나도 반드시 저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겠다’고. 이후 내 목표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범죄 희생자 등 약자의 ‘목소리’ 되어줄 터



서희린
(텍사스 ·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내 전공은 마케팅과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다. 이번 여름 방학동안 로레일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이 회사의 운영과 비즈니스 전략 등을 배울 예정이다.

대학에서의 내 전공은 비즈니스이지만 나는 항상 법 집행에 대해 큰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 언젠가 한국계 미국인 이든, 소수계 여성이든, 범죄 희생자이든, 모든 소수계를 위한 ‘목소리’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 내 바람이다.

나는 여행과 맛집 탐방을 즐겨한다. 필라델피아에는 독특한 식당들이 많아 이곳에 살면서도 다양한 도시들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유엔은 내게 글로벌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교실에서 배운 것을 직접 현지를 방문해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다. 지난 봄방학 때는 아테네를 갔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 그리스 전역을 여행하는 등 체험학습기회를 가졌다.

내 인생 목표 중 하나는 매년 한번은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세계의 아름다움도 경험해 보고 싶어한다.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으로 인해 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울 따름이다.

재미과기협 수학경시대회 1위... 자긍심 심어줘



대니얼 디크먼
(워싱턴 · 하버드대 컴퓨터 사이언스)

엄마 쪽 부모님은 한국 이민자, 아빠 쪽은 미국인이다. 두 부모님의 가정은 여러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정의 공통점이다.

양 쪽 조부모님들은 늘 팩트에 기반한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셨다. 특히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공동체는 상호의 존적이어서 남을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학업성취 가운데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주관하는 연례 수학경시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내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준 대회다.

고등학교 시절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로 선발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개인의 영예다. 학부 과정을 끝내면 대학원에 진학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로봇공학을 전공할 계획이다.

이번 여름 스페이스 X의 초청으로 인턴과정을 밟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드웨어와 접목시켜 빠르게 변하는 세계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자를 ‘꼰대’로 몰고 가는 사회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갈수록 심해져도 반론조차 없어 나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

를 가리키는 ‘꼰대기’ 또는 ‘꼰대기’라는 사투리에서 유래하여 ‘꼰대’라는 말로 변한 것으로, 학생들 사이에 ‘번데기 처럼 주름이 많은 늙은이’나 ‘늙은 선생님’ 등으로 고령자를 비하하는 은어로 사용돼왔다.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한편 지식정보화사회로도 급속히 진전되면서 ‘꼰대’의 의미가 확대되고 고령자를 비하하는 말이 되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공감 능력 부족 ⑦ 엄격한 위계질서와 조직 충성심 강조 ⑧ 자신의 보신을 위해 폐습(적폐)의 개혁에 소극적임 ⑨ 위협적이고 무시하는 언어(막말 등)를 자주 사용 ⑩ 달라진 사회적 가치관을 무시함 등이다.

장유유서를 포함한 유교적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시대적 변화를 거치는 와중에 특히 조직문화 속에서 고참, 선배,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보신을 위해 꼰대의 행태

니라는 것이다.

꼰대에 관한 체계적 조사는 아니지만 꼰대가 어느 연령층에 많은지를 짐작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있다. 조선일보(2019. 12. 28. 주말의 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20~30대 남녀 2009명을 대상으로 꼰대가 어느 연령층에 많은가를 물어본 응답 결과는 50대(35%), 40대(21%), 60대(13%), 30대(7%), 70대(4%) 순이었다.

놀랍게도 60대 이하 비고령자(청년층과 중년층)에서 꼰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특성과 관련

이 조사결과로 보면 꼰대는 나이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개인적 특성과 크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30여 년간 많은 학문적 연구 결과에서도 성인의 능력 또는 생산성은 나이보다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면서 구태의연하고 단순하게 고령자를 꼰대와 보수(골통)로 매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꼰대 같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의 수치

아직도 많은, 아니 어쩌면 대다수 국민과 사회지도층, 심지어 일부 지식층까지도 나이로 꼰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내달으며 경제적 선진국에 도달한 한국사회의 수치라 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고령자라도 얼마든지 꼰대가 아닐 수 있고, 비고령자라도 얼마든지 꼰대일 수 있다. 나이로 다른 사람을 꼰대로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바로 나이로 꼰대 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꼰대가 아닌지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 년 사이, 특히 지난 5~6년 사이 우리 사회에는 고령자를 꼰대로 매도하는 풍조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근로(생산)현장과 정치권에서 그런 풍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이성적이고, 국가 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잘못된 현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사회 지도자층이나 지성인들조차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우려를 표명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판단 기준은 주관적

고령자의 판단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라서 개인, 집단, 지역, 문화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50대부터는 고령자로 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 고령자고용법에서는 50~54세를 준 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사이 50대 이상의 건강상태는 10년 전 같은 나이 또래보다 크게 좋아지고,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되는 것 등의 영향으로 고령자를 60대부터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꼰대는 전남과 경북지방에서 번데기

꼰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외국에까지도 알려졌다. 2019년 9월 23일자 영국 BBC 방송국 Facebook ‘오늘의 단어’로 꼰대(kkondae)가 소개됐는데 그 의미를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 했다.

꼰대의 특성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의 특성을 정리해 본다면 ① 지식과 기술보다 경험과 경륜을 중시함 ② 편향된 고정관념에 얽매임 ③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함 ④ 과거의 자신을 미화하고 자랑함(나 때는~) ⑤ 말만 앞세워 오지랖 넓게 참견함 ⑥ 타인에 대한 배려와

를 보여왔고, 이러한 꼰대 행태가 후배들에게도 학습되고 세습되어 온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고령자는 꼰대와 보수(보수 골통)로 매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매도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고령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상당수 고령자는 그런 꼰대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내가 지난 40여 년간 노화 현상과 고령화를 연구한 과학적 지식으로 판단해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꼰대 여부 판단 기준은 결코 나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꼰대 여부는 개인의 능력, 생각, 언행, 인성 등 개인적 특성으로 판단할 것이지, 결코 나이로 판단할 것이 아



동창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비는 전 미주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2022년 4월 현재 모두 8,000부를 인쇄해 동문 각 가정에 우송한 바 있습니다. 회비는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회비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비납부 동문님들은 전체 구독자의 9%에도 못미치는 69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회비 제작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부디 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동창회 운영을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Dancing in the Mental Illness

정신병과 춤을 ... 팬데믹으로 위험에 노출



천양국
의대 63

디지털 인공지능의 위력이 대단하지만 정신병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 않다. 환자 수가 줄어들기보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2년 이상 지속되는 팬데믹은 삶의 모든 면을 흔들어 놓고 있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 정신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다.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지자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신병 질환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접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로 불안증, 우울증, 번 아웃 증후군 등을 이용하는데 또 하나 문제되는 정신질환이 허위성장애다. 대표적인 허위성장애는 '문하우젠 증후군(Munchausen's Syndrome)'과 꺾병의 두가지다.

병이 없는데도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자해를 저질러 병을 가장함으로써 타인의 관심과 동정을 얻기 위해 집착하는 정신질환이 문하우젠 증후군이다.

보통 어린 시절의 과잉보호나 정신적 상처로 인해 자립 능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대리인에 의한 문하우젠 증후군도 있다. 자신의 자녀나 주변인이 아무런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다고 하거나, 가짜 증상을 만들어 의사와 병원을 돌아다니는 등 자신이 얼마나 환자를 잘 돌보는가를 보여주려고 애쓴다.

꺾병과 문하우젠 증후군

또 하나의 허위성 장애인 꺾병은 증상의 거짓말과 동정, 관심이외에 금전적 이득,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회피를 위한 목적도 있다. 꺾병과 문하우젠 증후군 모두 오랫동안 의사와 만나 이야기 하면 거짓이 들어날까 봐 자주 의사와 병원을 옮긴다.

문하우젠 증후군은 주로 신체적 증세를 호소하고, 보통 여자에 많고, 꺾병

은 심리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의 호소가 비슷하고 여자에 많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 우울증, 성격장애, 문하우젠 증상, 꺾병 등의 증세가 서로 겹쳐있고 경계가 모호하여 진단과 치료에 무척 애를 먹는다.

꺾병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꺾병을 주제로 한 영화나 TV 시리즈는 수십 개에 달한다. 그중 2013년 개봉한 영화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s-부작용)'를 나는 좋아한다. 내용은 이렇다.

여자 주인공 에밀리는 돈 있는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다. 어느 날 자산 투자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편이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빼내 돈을 벌었다는 혐의로 체포된다. 실망한 에밀리는 절망감, 우울감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 빅토리아의 진료를 찾는다.

빅토리아 역시 남편에게 버림받고 우울한 처지에 있었는데 에밀리를 치료하면서 둘 사이의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영화 '사이드 이펙트'의 교훈

우울감이 아닌 심한 우울증 환자로 가장한 에밀리는 빅토리아와 함께 최근 새로 나온 정신과 약을 복용한 뒤 약 부작용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음모를 꾸민다.

해당 제약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려 빅토리아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그들의 음모망에 걸려든 정신과 의사가 잔이다. 우울증으로 방문한 에밀리에 잔은 여러 가지 항우울제들을 처방했으나 효과가 별로 없었다.

잔은 에밀리를 전에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가 빅토리아임을 알고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 빅토리아는 새로운 약을 시도해 보도록 권한다.

잔은 결국 에밀리에 새 약을 처방한다. 에밀리는 새 약이 잘 듣는다며 좋아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다. 그리고 경찰에 누군가가 남편을 죽였다고 울먹인다. 조사 결과 남편을 죽인 건 아내가 확실했지만 에밀리 자신은 전연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뉴스는 잔의 의사경력과 가정을 파탄 상태까지 몰고 간다.

잔은 그 동안 에밀리의 언행이 의심스러워 뒷조사를 한 결과 우울증상과 두 번의 자살기도가 모두 의도적인 거짓이고 또 빅토리아와의 연인관계도 알아낸다. 이 사실을 자기의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그게 사실로 밝혀져도 법정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잔을 말한다.

잔은 할 수 없이 법정에서 에밀리가

나 잔은 듣지 않는다. 만약 약을 안 먹으면 다시 감옥에 가야만 되는 판사의 명령이 있다.

우리는 하루 평균 한두 번의 거짓말이나 거짓 행위를 하고 산다. 그 중 병이 있다고 하여 타인으로부터 관심, 동정과 주의를 끌고 싶은 충동을 가끔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

허위성 장애 증상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갈등이나 분노 등의 심리적 문제들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어떤 괴로운 상황이나 심리적 충동을 받으면 갑자기 극적으로 나타나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고 오는 비와 함께 춤 추는 것은 신난다. 하지만 정신병과 춤 추는 것은 해롭다. 정신병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사랑해서도 안 된다.

꺾병을 부린 대가로 진짜 환자가 되어 정신병원에서 하루하루 눈물지며 살아가는 영화 속의 에밀리처럼 되기 쉽다.

병들고 싶어도, 병들고 싶지 않아도 늙으면 병드는 게 인생살이다. 애쓰게 거짓말 하며 의사와 병원을 찾아다니는 필요는 없다.

또한 자기를 무척 힘들게 했다고 정신병 없는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계속 정신과 약을 먹도록 복수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서도 안 되겠다. 양감은 일시적 쾌감과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론 언짢고 씁쓸한 감정을 주기 때문이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스릴러.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고발해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울증과 새 약의 부작용의 하나인 수면 보행(Sleep-walking), 곧 몽유병 때문이라고 증언한다. 일종의 각성 상태의 이상인데 거의 의식이 없는 몽롱한 정신 상태 중의 한 행동이라 잠에서 깨어나면 전연 기억을 못한다.

결국 에밀리는 정신병에 의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정에 의해 감옥 대신 정신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도록 판결이 난다.

하루 평균 2회 이상 거짓말

한편 복수를 결심한 잔은 입원해 있는 에밀리에게 강력한 정신과 약들을 처방한다.

에밀리는 거짓말로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고 우울증 환자인척 했지 정신병은 없다며 약을 안 먹겠다고 항의했으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박평일
농생대 69

저는 오래전부터 시니어 커뮤니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편리해도 나이들어 그곳에 들어가 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넘게 부동산 감정업에 종사해왔습니다. 부동산 감정일을 하면서 시니어 커뮤니티 부동산을 감정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들릴 때마다 웬지 어둡고 우울한 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나도 덩달아 어둡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커뮤니티 부동산 감정일은 가급적 회피해 오

고 있습니다.

저는 기철학이나 풍수지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 관련서적들도 다수 읽어보았고 실제로 체험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는 상호 관계를 통해 수시로 변해갑니다. 우주는 기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산길이나 해변가 숲길, 들길, 도시길을 산책하면서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 고유한 기를 느끼곤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들의 말과 행동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 속에 흐르고 있는 기를 느낍니다.

부동산 감정차 고객의 집에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그 집에서 흐르고 있는 독특한 기를 느낍니다. 밝고 맑은 행복의 기가 흐르고 있는 집들도 있고, 어둡고 우울한 불행의 기가 흐르는 집들도 있습니다.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확인해보면 내 느낌이 대부분 맞습니다.

같은 산길이나 숲길에도 어두운 기가 흐르는 곳이 있고, 밝고 맑은 기가 흐

는 곳이 있습니다.

명당이란 이렇게 밝고 맑은 기가 흐르는 곳을 행복을 위한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 어두운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좋습니다.

기는 아침안개와 같습니다. 그 기 속을 걷다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축축하게 젖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신문인가, 잡지에서 이런 행복지수에 대한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동네별 집단 행복지수를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마다 각기 행복지수가 서로 다르고, 행복지수가 높은 동네는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고, 행복지수가 낮은 동네는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먹구름은 먹구름이 모여들이고, 하얀 구름은 하얀 구름을 모여들이는 것이 기의 법칙입니다.

제 주위에도 나이들어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

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지옥처럼 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의 생활이 없이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들은 부부는 실과 바늘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생활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부생활에 성실하고 충실한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병을 얻거나, 얼마 안 있어 뒤따라 사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생각이 사뭇 다릅니다. 부부는 실과 바늘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실과 바늘을 가지고 있는 우정관계입니다. 각자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는 우주의 기본섭리입니다. 음이 없이는 양이 존재할 수 없고, 양이 없이는 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에게 이성과의 교제를 권유하곤 합니다. 이성은 같은 성의 친구나, 자녀들과 다른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예찬론 감기예방에 예뻐보이는 효과



하임숙
인문대 91

예전엔 미처 몰랐다. 연예인들의 공항패션 사진, 혹은 몰래 찍힌 연예인 사진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검은색 마스크가 이렇게나 실용적일 줄은. 그저 얼굴 가리기용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나 연예인이요', 은근히 드러내기용인 줄로만 짐작했었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에 강제로 착용하게 된 마스크는 여러모로 훌륭했다.

우선 겨울철에 달고 살던 폐 곁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침 감기가 최근 2년간 사라졌다. 손을 자주 씻고 수시로 항균 젤을 써낸 효과도 있겠지만 마스크의 영향이 가

장 컸던 것 같다.

건강 체질임을 자부하지만 그래도 찬 바람이 불면 연례행사처럼 찾아왔던 깊은 기침을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생활은 즐겁다.

얼굴형이 수정되는 의외의 효과도 크다. 자기주장이 강한 광대와 턱이 평생 불만이었는데 마스크를 쓰니 얼굴이 그저 계란형으로만 보인다. 그러니 컴퓨터미인, 성형미인을 넘어서 '마미(마스크 미인)'들이 득세하는 건 일견 당연해 보인다.

평소 회사를 가지 않는 주말엔 화장은 커녕 세수도 않고 하루 종일 뒹구는 게 일인데, 마트나 병원 등 꼭 나가야만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과감히, 뒹굴던 그대로 나가곤 했지만 사회생활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피차 민망해지기 일쑤였다. 그런 점에서 마스크는 게으른 자들에게 신의 한수다.

좋은 점만 있을까. 뜻하지 않은 비용도 들었다. 같은 '마미'라도 눈 모양에 따라 '더' 미인이 결정되다 보니 대입

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재수를 결정한 아이가 재수생의 필수 덕목이 '쌍수(쌍꺼풀 수술)'라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딸과 오간 온갖 험난한 대화를 한 마디로 순화하자면 "아이야, 공부에 몰입해야 할 시기에 웬 쌍수 타령이니?" "어머니, 쌍수만 장착되면 재수력이 업그레이드돼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것 같아요"였다.

자식에겐 영원한 '을'인 게 부모라, 채 3주를 못 버티고 아이를 고이 모시고 가서 쌍수를 시켜줬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만 해도 매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생활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나처럼 생활의 필수요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팬데믹과 함께 익숙해진 낯선 것들이 어디 마스크만일까. 20자 내외의 숫자 정보만 담고 있는 바코드의 350배 넘는 숫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는 도입 초기엔 내 일거수일투족을 온갖 곳에 뿌리는 것 같아 영 찝찝했지만 어느새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감기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손을 정갈히 씻은 후 자기 코를 깊이깊이 찌른 뒤 한 줄 나오나, 두 줄 나오나 지켜보는 일도 해본 지 얼마 됐다고 당연하게 느껴진다.

개인은 이처럼 적응이 빠르다. 어색해도, 때로 좀 불합리하다 느껴도 다같이 나아가 정한 방침을 따르는 게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시민의식이 기저에 깔렸기 때문 이리라.

그런데 암만 봐도 한국의 행정은 적응력이라는 게 1도 없는 듯하다. 마스크 공급 부족 대란에서 아무런 교훈을 못 얻었는지 자가검진 키트 대란, 병실 찾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 매커니즘을 읽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 행정을 하지 않다 보니 배움이 쌓이지 않는다. 이러니 개인은 일류, 국가는 삼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총동창신문 논설위원)



손화영
음대 90

열두 달, 사랑의 인사

여있는 박스를 푸는 정리 전쟁이 반대로 시작되었다. 고작 20 마일 남짓 떨어진 곳으로의 이사는 몇달에 걸쳐 몸살과 함께 결국 풀지못한 박스 몇개를 차고에 남겨놓은 채 그렇게 끝이났다.

새로운 곳에서의 일상도 얼마간은 다르지 않았다. 아침저녁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를 하는 등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서서히 정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즈음 각종 뉴스 매체에서는 코로나 19 라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를 연신 쏟아내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 아닌 일상에 갇히게 되었다.

비단 마스크를 쓰고 봉쇄된 도시라는 음울한 영화 같은 세상뿐만이 아니었다. 나와 같은 무대 연주자들은 자리할 곳이 없어졌다. 악보가 닳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를 다듬고 또 다듬어 쏟아지는 따뜻한 조명이 있는 무대에 올라 기대 가득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가 없어진 것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다. 몇 달이면 끝날 것 같던 상황은 기약 없이 흘러갔고 상실과 체념에 빠져있을 것만 같던

세상은 각지에서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거듭났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가수는 봉쇄된 도시, 자기 아파트 발코니에서 위안 삼아 세상을 위로하듯 노래를 불렀고, 뉴욕의 음악가는 한눈에 보이는 야경을 선율에 담아 피아노를 친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각지의 동료와 함께 시작한 몇번의 랜선음악회의 아쉬움은 도시 봉쇄가 풀리며 무관중 음악회를 열 수 있게 되며 달랠 수 있게 되었다. 관객도 없는 무대에 홀로 앉아 미국에서 생소하기 짝이 없을 전통 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타는 한시간 가량은 무척 고된 시간이었다.

끊어진 하늘길에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가야금과 함께하는 장단을 치는 고수를 모셔서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혼자 연주하는 동안 흠어지는 신경을 다잡으려 부단히 애를 썼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이 감도는 불 꺼진 관객석은 오히려 집중을 방해했으며 생전 처음인 무관중 연주회의 경험은 정말이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연습인듯 실전인듯 연주회가 끝나고 박수소리 하나없는 텅빈 무대를

떠나며 처음 느껴보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나아진 상황에 마스크를 쓴 관객과 함께 대면 연주회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예전과 같지않은 관객수에 거리두기를 하며 띄엄띄엄 앉아있는 객석이었고 마스크를 쓴 얼굴은 어떤 반응인지 자세히 알기 어려웠지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설렘에 감동 가득한 무대였다. 그렇게 감사한 무대는 해가 바뀌며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돌아보면 참으로 색다르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제 무대에서 마스크를 벗은 관객을 보며 함께 눈으로, 표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된 것처럼 새이웃과 마침내 제대로 인사하며 얼굴을 익히게 되었다. 더는 멀찍이 떨어져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 감사한 나날이다.

가야금의 열두 줄은 일 년 열두 달을 의미한다. 일 년 열두 달,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열두 줄의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넨다.

“반갑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나고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이후 그동안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 누리던 소소한 일상과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다니던 길, 한가로이 떠나던 여행과 관객과 함께하는 콘서트 등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했기에 알지 못했던 소중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물론 지금도 바이러스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한결 나아진 상황 덕분에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팬데믹 시작 전,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이사집과의 전쟁은 이사 당일에서야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었지만, 새집에 산처럼 쌓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딸의 함정’에 빠진 엄마들

지인 중에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있다. 아들 둘에 막내가 딸이다. 자녀가 몇 명이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투 볼, 윈 스트라이크’라며 야구에 빗대 얘기한다. 그 분에겐 딸이 ‘스트라이크’다. 아들이 없는 ‘딸딸 아빠’를 보면 은퇴해도 걱정없겠다고 농을 치곤 한다.

그가 ‘딸 바보’가 된 사연은 이렇다. 한 달에 몇 번은 양로병원으로 출장진료를 가는데 아들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딸이 병 수발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딸은 ‘노후 보험’이나 다름없다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그분의 말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전미은퇴자협회(AARP) 조사에 따르면 노부모를 돌보는 자식 10명 가운데 7명이 딸이다. 이쯤되면 부모 케어가 딸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성 싶다.

로럴 케네디는 이 같은 사회현상을 책으로 써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여성이다. 타이틀은 ‘딸의 함정(The

Daughter Trap)’이다. ‘엄마와 아빠 돌보기’란 부제가 붙어있다. 부모의 노후를 떠맡게 된 것을 ‘함정’으로 표현해 화제가 됐다.

저자는 200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함정’이 얼마나 깊고 또 고통스러운가를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불화와 반목, 감정의 골을 심도있게 그려 딸들의 필독서로 꼽힌다.

케네디는 치매에 걸린 엄마와 90세가 넘은 아빠를 돌보느라 자신도 거의 20년이나 ‘함정’에 빠졌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한 커리어우먼이다. 워킹맘인 저자는 아이 키우라 직장생활 하라 부모 모시라 삼중고를 겪었으나 매우 의미있는 희생이었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딸은 왜 ‘함정’에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 저자에 따르면 총이나 자동차 등의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들과는 달리 딸은 인형과 함께 커 남을 배려하는 습성이 몸에 밴 탓이다. 이 같은 배려심이 나중에 부모 케어로 연결돼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감정이 앞서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한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따위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덜컥 ‘일’을 저지르고 본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들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통에 부모의 노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딸에 떠 넘겨진다.

MBA 출신답게 케네디는 여성의 금전적 손해까지 산출해 냈다. 딸이 부모 수발에 빠앗기는 햇수는 평균 11.5년. 그러나 아들은 1.3년에 불과하다.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몰라도 저자는 딸로 태어난 죄로 여성은 65만9000달러의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 주장한다.

아들만 있는 가정은 어떨까. 고부 갈등이 있는 집이라도 대부분 며느리의 몫

이다. 며느리조차 없다면 너싱홈으로 갈 수밖에.

부모를 돌보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성은 1500만명 쯤으로 추산된다. 지난 30년은 자녀를 위한 ‘차일드 케어(child care)’로, 이제는 80~90대의 부모를 위한 ‘엘더 케어(elder care)’로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대고 있다. 그 자신도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있는데도 말이다.

알고 보면 ‘마더스 데이’도 딸이 주도해 만든 날이다. 1900년대 초 애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캠페인을 벌인 것이 미국 최대의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5월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이다. 5월이 다 가기 전 ‘딸의 함정’에 빠진 엄마들에 카네이션을 듬뿍 선사해 보자. “딸을 가진 부모는 행복하다. 평생 걱정이 없을지니.” 팝싱어 존 메이어가 부른 노랫말이 귓전에 맴돈다. <편집고문>

미국은 카운티 판·검사가 왜 선출직이 됐을까 중범죄는 대배심이 기소 여부 결정... 대통령도 법정에 세워

1977년 5월 초로 기억한다. 벤저민 시빌레티 미국 법무부 차관보 일행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날이다. 처음보는 미국의 고위 공직자여서 유심히 살폈다. 트랩을 내리는 시빌레티의 바지 주머니가 뜯어져 속옷이 살짝 비쳤다. 양복이 좀 낡아 보였다. 구두도 앞코가 뭉툭한 것이 싸구려 같았다. 오래된 일인데도 기억에 또렷이 저장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법무부 측 영접인사들의 차림 때문이다. 모두 ‘빠까번쩍’하는 옷과 구두를 신고 나왔다.

시빌레티는 검사와 연방수사국(FBI) 요원 서너명을 대동한 채 한국땅을 밟았다. 박동선의 불법 로비활동, 곧 ‘코리아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당시 박동선은 연방법을 어겨 연방경찰에 해당하는 FBI 조사를 받았다. 연방범죄는 간첩이나 반역, 위조지폐, 금융사기, 돈 세탁, 세금포탈, 연방공직자들을 상대로한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박동선 스캔들

박동선은 기소가 됐는데 그 주체가 검찰이 아닌 연방대배심(Grand Jury)이었다. 기소는 검사가 하는 줄 알았는데 왜 대배심? 헛갈렸다. 무지했던 탓이다. 그때 처음 알았다. 미국의 사법체계가 연방과 주(카운티)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다.

연방검사(U.S. Attorney)는 전국에 93명이 있다. 한인 2세 여성도 한 명 포함돼 있다. 임기는 4년.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인준을 받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모두 옷을 벗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특별한 점은 연방검사는 ‘대통령의 기쁨조’라는 사실이다. 규정에는 ‘serves at the pleasure of the president’로 나와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

시에 따르지 않거나 대통령의 맘에 들지 않으면 그 직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연방검사는 물론 기소권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FBI 등 법집행기관에 법적 조언을 해주거나 수사의 방향(direction)을 제시하기도 한다. 어찌보면 이것을 수사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FBI도 검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 가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박동선을 기소한 연방 대배심은 23명의 ‘시민들’로 구성된다. 과반(12명)이 찬성하면 기소된다. 일반 형사 범죄는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범죄에 해당될 경우 대배심에 회부된다. 권력자로부터의 ‘외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주나 카운티의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연방 대배심은 기소여부만을 결정한다.

대배심은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발동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과의 섹스 스캔들 위증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돼 의회 탄핵재판에 넘겨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반면 주의 카운티 검사장(District Attorney · DA)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헌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반 범죄는 경찰에 수사를 위임한다. 경찰을 독립기관으로 간주, 존중해 주기 위해서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OJ 심슨 사건이 단적인 예다. 프로풋볼 스타인 심슨이 이혼한 백인아내와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심슨을 변호한 ‘드립팀’과 미모의 카운티 여검사 마샤 클라크, 일본계 랜스 이

토 판사, LAPD 소속의 ‘백인’ 경관 등이 어우러져 연일 치열한 법정 드라마를 찍었다.

쟁점 중 하나가 범죄현장 방문이었다. 배심원단이 LAPD 측에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협조를 요청한 것. 검찰 측도 동의했다. 배심원들이 끄적했던 범죄현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유죄평결이 나올 것 같아서다.

그러나 경찰 측이 즉각 거부했다. 수사권 침해라는 이유를 댔지만 여론의 압력에 굴복, 결국 배심원단의 방문을 허용했다. 이때 LAPD 측이 쓴 용어가 현장검증이 아닌 ‘현장견학(field trip)’이었다. 얼마나 현장 공개가 싫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지 짐작이 간다.

미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배경이다.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거 같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경찰은 인종차별 발언, 증거물의 오염 등 허술한 수사로 인해 재판에서 졌다.

O.J. 심슨의 세기의 재판

카운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예도 적지 않다. 중대범죄의 경우는 검찰내 수사국(Bureau of Investigation)이 전담한다. 주로 경찰폭력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기업의 사기, 선거범죄 등 ‘예민한’ 사건들이 직접 수사대상이다.

카운티에도 중범죄(felony crimes)인 경우 대배심에 회부된다. 카운티 대배심도 연방처럼 23명의 주민들로 구성되는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가 범죄요건을 충족시키는지 등을 정밀 조사한다. 그러다음 수피리어 코트에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 검사와 카운티 검사장(DA)과의 차이점은 뭘까. 연방검사는 정치적 사건인 경우 ‘외압’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카운티 검사장은 선출직이어서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년마다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해 부정에 휩싸일 소지가 그만큼 적다.

검사장 뿐 아니라 카운티 판사도 임기 6년의 선출직이다. 판·검사가 선출직인 나라는 이 세상에 미국 말고는 없을 것 같다.

엘리트 경계한 제퍼슨

왜 선거로 뽑을까. 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평소 엘리트층을 극히 싫어하고 경계했다. 이들이 한 통속이 되면 특권층이 돼 유럽의 귀족계급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패가 만연돼 어렵사리 쟁취한 독립이 흔들린다는 지론을 폈다. 오죽했으면 ‘사람 아래 사람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을 남겼을까.

제퍼슨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의 판사와 검사는 어쩔 수 없다지만 각 주의 카운티 판사와 검사만큼은 선거로 뽑아야 공정하다고 믿었다. 주지사 임명직으로 하면 봐주기 인사, 뒷돈이 오는 등 부정이 스며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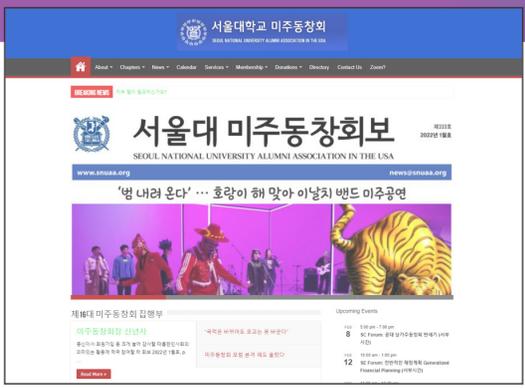
제퍼슨의 영향으로 카운티 판사와 검사장은 대부분 선거로 뽑는다. 전관예우나 학벌 따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원천봉쇄됐다고 할까.

건국초기 제퍼슨과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건 미국으로선 크나큰 행운이었다. 그래서 행운의 상징 2달러 지폐에 제퍼슨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제롬 박(문리대 66)

snuaa.org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놨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러시아의 침공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민일기
약대 69

사람이 어디에서 또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되듯 한 나라나 한 민족의 운명도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상당히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이다.

우크라이나는 초강대국인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거의 지난 1000여 년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 아래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한동안 국지전으로 숲안에서 부글부글 끓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분쟁이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세기 두차례 세계대전을 겪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말로 형용할 수 없

는 참상을 겪었던 유럽은 물론 전세계가 이 전쟁을 예의 주시하고 혹시 만에 하나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핵전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전 세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나토 가입이 빌미 제공

세계는 현재 초강대국들과 그 주변국들이 몇개의 세력권을 형성하여 나누어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 러시아와 구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 동아시아의 중국과 그 주변국, 인도와 남아시아 주변국 등이 있다. 지역 패권국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것에 따라 주변국들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어떤 안보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1990년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구소련의 영향하에 있던 동유럽국가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 러시아를 자극해 안보위기를 느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구소련국들과 서방을 경고하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동유럽의 러시아와 독일 등 강대국사이에 낀 중소국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싫든 좋든 지난 1000여 년동안의 역사를 일부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영향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과 환란을 당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구소련의 해체후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자신들은 이웃의 폴란드나 발틱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과 같이 EU와 NATO에 가입함으로써 더 나은 장래를 추구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 이것이 러시아의 이해와 상충하는 것이 근본 이슈인 것 같다.

이러한 관계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와 비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지역 패권국 중국에 붙어 있는 지정학적 운명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조선은 건국 이래 명나라나 그뒤를 이은 청나라에 사대를 근간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이것이 초강대국 중국의 변방에 있는 조선으로서의 생존전략이랄 수도 있었다.

조선의 사대주의 외교

하지만 중국은 조선을 비롯한 작은 국가들을 조공을 바치는 자신들의 영향권 하에 있는 속국으로 취급해 왔는데 19세기 개항기에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로 과연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이슈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선의 독립을 자신들이 추구한 것이 아니고 조

선을 집어 삼키고자 하였던 일본이나 러시아가 주장하고 나섰고 그것을 위해 청일 전쟁과 노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명목상으로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 대한제국이 되고 고종황제가 즉위했지만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길목이 되었을뿐 조선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데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되었다. 결국 독립국가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국 강병으로 스스로 힘을 기르고 남이 넘볼 수 없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이나 운명이 유전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듯이 어느것 한가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 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등 강대국 가운데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던 스위스 또는 러시아의 이웃으로 있으나 굳굳히 독립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 행복지수를 자랑하는 핀란드가 그 좋은 예가 아닐까 한다.

지정학적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무릅쓰고 스스로 거듭나는 산고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성공하기를 빌며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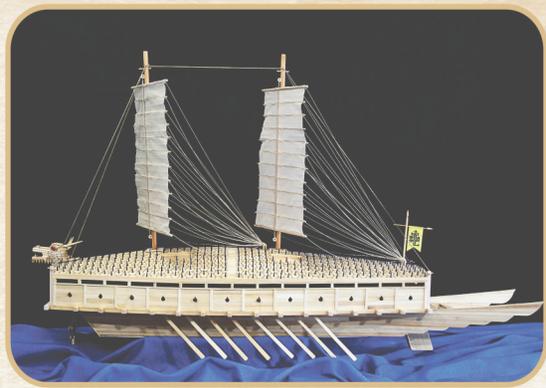
역사적인 미국 독립기념일 워싱턴 거북선 퍼레이드

-미주 서울대인의 지극한 충무공 이순신 사랑과 한미 우호의 정신으로-

동문 여러분의 \$100 지원을 호소 드립니다.

송금 방법 \$100 또는 자유 금액 수표를 아래 명의로 주소로 우송

보내실 곳 Yisunsin America Institute
P.O.Box 9584, McLean, VA 22102



*** 특별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 이상) ***

남가주 지역	워싱턴 D.C	뉴욕	펜실베이니아
박윤수 (문리대) \$600	박용걸 (약대) \$8,200	이전구 (농대) \$200	서중민 (공대) \$300
이송희 (간호대) \$500	정원자 (농대) \$500	신용남 (농대) \$250	손재욱 (생과대) \$200
조옥동 (사대) \$200	교안선미 (농대) \$6,200	시카고	매사추세츠
나정자 (간호대) \$300	변만식 (사대) \$500		
오송자 (사대) \$1,000	이건형 (수의대) \$1,300	이용락 (공대) \$500	오세경 (약대) \$1,000
	민홍기 (문리대) \$1,000		
	서휘열 (약대) \$500		

간사 이우진 (농대 86) 703-470-7282 towoojin@gmail.com • 자문 이내원 (사대 58) 703-725-8910 naewonlee@yahoo.com

윤석열 동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은 은사가 가난했지만 자비로 제자들에 책자 만들어 줬



최혁
음대 72

윤석열 동문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등 학교 교사 두 분이 초청되었다는 기사를 보며 놀랍고, 반갑고, 감사했다. 그 중 한 분은 나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다. 손관식 선생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글 쓰기를 독려하셨다. 매일 일기 쓰기를 권하셨고, 기회만 있으면 누런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글을 쓰게 하셨다. 꽃이 핀 날은 꽃을 보며, 눈이 오는 날은 눈을 보며 글을 쓰게 하셨다. 어떤 땐 타골의 '종이배'를 읽어 주셨다. 방정환, 박목월의 이름도 그때 들었다. 작문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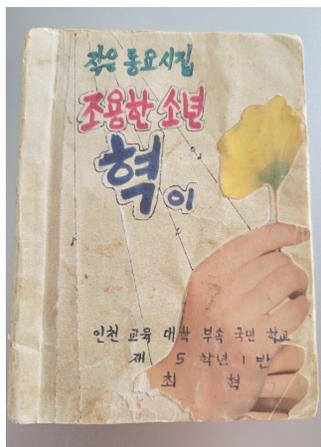
나는 이 시간을 무척 즐겼다. 선생님은 여러 번 내가 쓴 글을 뽑아서 학생들 앞에서 읽어주곤 하셨다.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던 나는 그때마다 하늘 올라가는 풍선처럼 마냥 기뻐했다. 얼마 후 선생님은 동시들을 모아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 주셨다. 아마 대 여섯 제자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 나에게도 '조용한 소년 혁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그동안 썼던 동시들을 모아 손수 그림과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 주셨다.

나는 아직도 이 조그만 책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그 소책자를 받은 학생 중 4명이 훗날 서울 대학교 학생이 되었다. 그 중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고, 2명은 서울 대학교 교수

가 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타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남편이 서울 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초등학교 5학년 1반 동창 3명이 관악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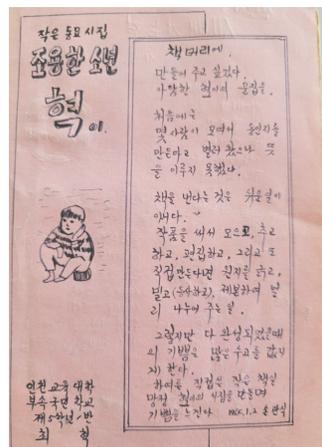
그때 손관식 선생님을 기억하고 총장 공관에서 선생님 초청 감사 파티를 열었다. 나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에 깜짝했다. 10여년 전에 쓴 '사랑은 모델이다'라는 책을 손관식 선생님께 헌정했는데 그 땐 선생님이 어디 계신 지도 몰랐었다. 우연히 선생님은 내 책을 보시고 내게 연락을 해주셨다. 55년만의 감격이었다!

손관식 선생님 제자들은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섬김 때문이다. 그렇게 학생들을 열심히 가



부양하기는 빠듯하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항상 자비를 드러 학생들에게 개인 문집을 만들어 주셨다.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 어린 학생들을 섬기시던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섬김! 에릭 프롬은 죄인이라는 말을 이기적 인간이라는 말로 이해한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다. 유치원에 가면 '내꺼야'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다 내 것이란다. 이 우주의 중심엔 자기만 있단다. 남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좀 곤란하다.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르치고 섬겼다고 해서 돈을 더 받으신 것도 아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그 해에 당신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섬겼다.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나는 5학년 때 선생님 댁을 세 번 방문했는데 초청 하셔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방문했었다. 빈민가의 작고 어두컴컴한 집이었다.

내 기억에 단 칸 방에는 늙으신 어머님, 처, 간난 아들 그리고 조카, 이렇게 다섯 식구가 함께 살고 계셨다. 아마 그 당시 초등 교사 월급으로 이 가족들을

관심이 바뀌는 것이다. 성인(聖人)이란 무엇인가? 자기를 내 주며 온전히 남 중심으로, 남을 섬기며 산 사람들이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다. 이 목적을 놓치면 불행하다. 왜 공부하는가? 왜 일하는가? 왜 돈 버는가?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학생들에게 100 달러씩 주면서 한 주간 동안 자기를 위해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 이게 과제라구? 학생들은 신나게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필요한 것을 사는데 돈을 썼다. 그 다음 주에 또 100 달러씩 주면서 이번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라고 했다. 그 후 모여서 어떤

때 더 행복했는가, 왜 행복했는가를 토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였다. 놀랍게도 모든 학생들은 남을 위해 100달러 사용할 때가 더 행복했다고 말했다. 인생 살면서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아직 유아기적 자기애의 기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내가 소유하면 이익이고, 남 주면 손해라는 유치한 발상이 짝 박혀 있다. 실상은 반대다. 남을 섬기면 행복해진다. 남을 섬기면 자신이 확장된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부모님에게 짜증만 부리던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에서 홈리스들을 섬겨 보고 와서는 확 달라진다. 인생의 성공은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바쳐 남을 섬긴 결과다.

보상 심리가 있으면 섬기다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 나는 손 선생님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열심히 섬기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섬기지는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다고 순수한 섬김에 보상이 없는가? 보상을 바라고 섬기지는 않았지만 보상이 따른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 받으려고 인도 캘카타에서 봉사했겠는가? 슈바이처가 가봉에서? 사람들은 순수하게 섬긴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

코흘리개 어린 학생들이라도. 윤석열 동문의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5년 동안 별별 일들이 다 생기겠지만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길 기도한다. 손관식 선생님의 섬김의 정신이 윤 대통령께도 함께하길 기도한다.

서울대 동창회보에 나온 동문들은 다 행복해 보인다. 모두 충분히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런데 서울대 동문 중에도 힘들게 살아가는 동문들이 많은 줄 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당신은 왜 사는가? 지금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동창회보 광고협찬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한 인쇄매체입니다. 매달 거의 1만부를 인쇄 배포하고 있어 동창회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동문들이 광고로 협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종신이사 회비는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 300만 달러 모금 캠페인 계정에 별도 적립되고 있어 동창회 운영비용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 후원금으로 도와주시면 동창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내=27면 참조〉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1,084,902 (\$114,273 모교발전기금 포함)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워싱턴주 - 고고광선(공대57)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 조지아 - 주종광(약대60)
-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 네바다 - 정상진(상대 55)
-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 북가주 - 민병근(공대65)
-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실버이사 (\$5,000이상)

-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 워싱턴DC - 남욱현(경영84)
-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 故서영석(의대55)
- 故오재인(치대33)
- 故윤낙승(의대60)
- 강신용(사대73)
- 곽웅길(문리59)
- 권기홍(의대60)
- 권봉성(문리64)
- 김경숙(간호68)
- 김기형(상대75)
- 김동훈(의대71)
- 김보연(간호63)
- 김상찬(문리65)
- 김성호(법대64)
- 김재영(농대62)
- 나두섭(의대66)
- 노재성(법대58)
- 류재풍(법대60)
- 박명근(상대63)
- 박용필(문리66)
- 박원준(공대53)
- 박윤수(문리48)
- 박종수(수의58)
- 방명진(공대73)
- 백만일(공대64)
- 서동영(사대60)
- 서치원(공대69)
- 심상은(상대54)
- 오홍조(치대56)

- 이근원(공대67)
- 이세열(사대57)
- 이승훈(상대74)
- 이청광(상대61)
- 임낙균(약대64)
- 임용오(의대57)
- 전희택(의대58)
- 정동구(공대57)
- 정임현(간호72)
- 정철룡(의대55)
- 제영혜(가정71)
- 조용원(문리66)
- 조한원(의대57)
- 차민영(의대76)
- 차종환(사대54)
- 하기환(공대66)
- 한호동(공대58)
- 홍병각(문리55)
- 홍성선(약대72)
- 홍종화(약대74)

뉴욕

- 故김광호(문리62)
- 故한창섭(문리57)
- 강에드워드(사60)
- 고애자(음대57)
- 김승호(공대71)
- 김종률(사대51)
- 김한중(의대56)
- 김해암(의대52)
- 석창호(의대66)
- 신용남(농대70)
- 윤종숙(약대66)
- 이강홍(상대60)
- 이기영(농대70)

- 이대영(문리64)
- 이재덕(법대60)
- 이재량(상대61)
- 이전구(농대60)
- 이준행(공대47)
- 이태호(상대 58)
- 최수용(상대55)
- 최영태(문리67)
- 추재욱(의대57)
- 한태진(의대58)
-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보건69)
- 故박경민(의대53)
- 고종성(사대75)
- 김문소(수의61)
- 김용구(공대66)
- 오세경(약대61)
- 윤선홍(치대64)
- 이의인(공대68)
- 전신의(문리57)
- 정정욱(의대60)
- 정태영(문리71)
- 홍지복(간호70)

미시간

- 故남상용(공대52)
- 정태(의대 57)

미네소타

- 김권식(공대61)
- 김태환(의대58)
- 남세현(공대67)
- 변우진(인문81)

- 조형준(문리62)
- 황효숙(사대65)
- 북가주
- 강재호(상대57)
- 손석보(공대68)
- 윤정옥(약대50)
- 한만섭(공대49)

샌디에고

- 임천빈(문리61)

시카고

- 심상구(상대63)
- 이재희(치대67)
- 장윤일(공대60)
- 조봉완(법대53)
- 최의필(의대53)
- 한재은(의대59)

아이오와

- 김시근(공대72)
- 오레곤
- 김상순(상대67)
- 이은상(상대52)

오하이오

- 김용현(경원66)

워싱턴DC

- 공순욱(간호66)
- 박평일(농대69)
- 이윤주(상대 63)
- 최지원(의대61)

- 강연식(사대58)
- 권기현(사대53)
- 민흥기(문리61)
- 방은호(약대43)
- 이내원(사대58)
- 오인환(문리63)
- 워싱턴주
- 故김영일(공53)
- 이명자(간호74)
- 이희백(의대55)
- 임헌민(공대84)

조지아

- 김용건(문리48)

코네티컷

- 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 김중권(의대63)

텍사스

- 박태우(공대64)
- 이광연(공대60)
-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 고병은(문리55)
- 김영우(공대55)
- 김현영(수의58)
- 서종민(공대64)
- 손재욱(가정77)
- 신성식(공대56)

- 신의석(공대53)
-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 김경숙(가정70)
- 김명자(문리62)
- 배규영(사대68)
- 오명순(가정69)
- 이교락(의대53)
- 이상강(의대70)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일반후원금

남가주

강신용(사73)	200
구철희(의78)	125
권기상(대72)	105
김동석(음64)	200
김병연(공68)	200
김새담(법55)	25
김영(수63)	500
김영봉(사60)	200
김영중(치66)	75
김영희(간54)	50
김은숙(미62)	1,000
김은중(상59)	400
김종섭(법66)	100,000
노명호(공61)	20,000
노진걸(사70)	200
박우선(공57)	500
박원준(공53)	200
박은숙(미62)	200
박중수(수58)	12,000
박혜란(음72)	300
방석훈(농55)	500
성주경(상68)	200
손영아(음)	15
송영두(공59)	200
신영찬(의63)	200
안혜정(생77)	200
오찬수(약57)	200
오홍조(치56)	50
이명선(상58)	500
이법식(공61)	375
이병준(상55)	3,000
이소희(의61)	75
이장길(치63)	50
이창신(법57)	500
박용필(문66)	1,000
장동석(문66)	200
전낙관(시60)	75
전원일(의77)	75
정균희(의65)	10,000
정신(대92)	1,000
정재훈(공64)	260
최용완(공57)	100
최종권(문59)	220
최진석(법64)	25
한귀희(미68)	2,000
한홍택(공60)	200

뉴욕

강에드워드(사60)	200
강창홍(의63)	50
고애자(음57)	50
권영국(상60)	200
금영천(약72)	1,000
김명철(공60)	200
김완주(의54)	75
김은희(간78)	200
김종원(사58)	50
김중권(의63)	200
리준우(음65)	200
문석면(의52)	200
박순영(법56)	75
서량(의63)	75
선종철(의57)	100
신영남(농70)	1,400
이강홍(상60)	200
이재덕(법60)	75
이전구(농60)	500
조남천(사59)	350
조태환(상56)	50
차수만(약71)	300
최한용(농58)	1,500
한승순(간70)	150
허선행(의58)	200
홍종만(공64)	200

미시간

김희주(의62)	225
오동환(의65)	200
윤효윤(의56)	200
이성길(의65)	100
이정화(음56)	200
이재승(의55)	75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500
박중승(의56)	200
주창준(의50)	200

북가주

부영무(치72)	200
한상봉(수67)	500
황만익(사59)	200

샌디에고

이휘영(법59)	75
----------	----

플로리다

임필순(의54)	200
조경호(의66)	200

시카고

김현주(문61)	100
소진문(치58)	200
이영섭(수56)	75
이용락(공48)	1,000
정의철	250
최희수(문67)	100
한경진(상59)	200

오레곤

김상순(상67)	200
----------	-----

텍사스

박영규(사66)	200
이석호(농78)	200
진기주(상60)	500
황명규(공61)	200

필라델피아

이만택(의52)	200
이승공(의63)	200
정태광(공74)	100
지흥민(수61)	200
손재욱(생77)	200

하트랜드

고 차봉희(의51)	500
이상강(의70)	10,000
최은관	500

미네소타

문성인(공88)	50
----------	----

워싱턴

민영기(공65)	75
----------	----

조지아

정양수(의60)	25
김용건(문48)	200

워싱턴DC

강길종(약69)	200
고무환(법57)	200
권철수(의68)	200
김동훈(법56)	200
남옥현(경84)	1,000
박평일(농69)	400
박홍우(문61)	200
변광록(간72)	200
백순(법58)	200
서윤석(의62)	200
석균환(문61)	200
석보환(사68)	200
오인환(문63)	600

유영준(의70) 175
이건형(수54) 25
이내원(수58) 75
이선구(문65) 275
이연주(치88) 200
정평희(공71) 200
조화유(문61) 75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388

캐롤라이나
한광수(의57) 500

커네티컷
김기훈(상56) 200
최창승(의52) 5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상81)	240
고석자(인72)	600
김경무(공69)	400
김양희(음77)	3,700
김원택(공65)	240
김은중(상59)	600
김자성(의79)	1,500
김정빈(공66)	500
나두섭(의66)	200
나정자(간70)	400
미주동창회(11대)	1,000
미주재단	6,000
민일기(약69)	500
박수경(생84)	2,400
박제환(문75)	500
박찬호(공58)	300
서동영(사60)	240
서치원(공69)	2,500
안혜정(생77)	200
이기준(법54)	500
이법모(치74)	250
이상대(농80)	240
이원택(의65)	2,200
이중모(간69)	240
임춘택(상68)	400
정재훈(공64)	240
주영세(사59)	400
차민영(의76)	1,500
최응준(수81)	400
한홍동(공58)	300
홍훈정(음70)	400

뉴욕

김기택(수81)	240
김승호(공71)	1500
석창호(의66)	240
신영남(농70)	240
이전구(농60)	240

워싱턴DC

남옥현(경84)	9,300
이내원(사58)	1,0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공57)	300
박원준(공53)	700
이범모(치74)	200
홍선일(공71)	100

워싱턴DC

권철수(의68)	100
최재귀(미63)	300

워싱턴주

이원섭(농77)	150
----------	-----

필라델피아

손재욱(생77)	100
----------	-----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공53)	300
한홍택(공60)	50,000

시카고

이용락(공48)	300
----------	-----

뉴욕

신영남(농70)	200
이강홍(상60)	500

필라델피아

손재욱(생77)	100
----------	-----

미시간

이정화(음66)	175
----------	-----

Brain Network

시카고

이용락(공48)	200
조중행(의63)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생77)	100
----------	-----

Charity Fund(나눔)

필라델피아

손재욱(생77)	100
----------	-----

지부분담금

샌디에고	550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워싱턴DC	2,000
필라델피아	1,000
시카고	2,400
조지아	800
오레곤	300
플로리다	300
오하이오	300
알래스카	200
남가주	3000
하와이	300

우크라이나 기부금

남가주

구상선	50
노명호(공 61)	1,000
유의영	100
이정남	200
이호진(간74)	100
서진(간56)	3,000
안혜정(생77)	300
한홍택(공60)	1,000
홍종화(약74)	500

북가주

이장우(문72)	100
----------	-----

뉴욕

민준기(공59)	100
조상근(법69)	1,000

조지아

김용건(문48)	200
유성무(상66)	300

오레곤

한영준(사60)	100
----------	-----

워싱턴DC

최재귀(미63)	200
----------	-----

커네티컷

유시영(문68)	500
----------	-----

워싱턴

이길송(상57)	100
----------	-----

시카고

김신웅(생59)	300
재환수(사61)	200

휴스턴

진기주(상60)	1,000
----------	-------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100
----------	-----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200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150(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3,000(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480(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_____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r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복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양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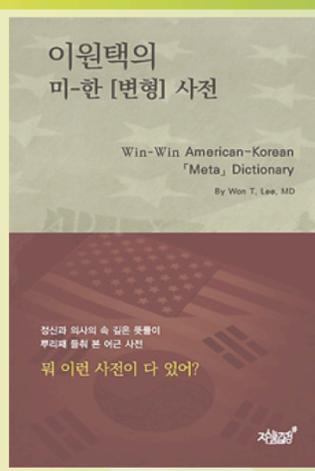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정신과 의사 (의대 '65)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셜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우(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중(미)
 IT 국장: 심재호(공)
 문화 광고국장: 홍선례(음)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이준수(공)
 장만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논설 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정홍택(상), 김지영(사), 박제환(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연(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 이메일 news@snuuaa.org |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김철규(공대 60)
 cheolk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rmial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용문(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정무형(문 70) T: (213)458-4969
 chung0520@gmail.com

시카고 IL/IN/WI/MI (Jan~Dec)

회장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차기 회장 황치룡(문리 65) T: (847)895-2814
 chi.whang@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김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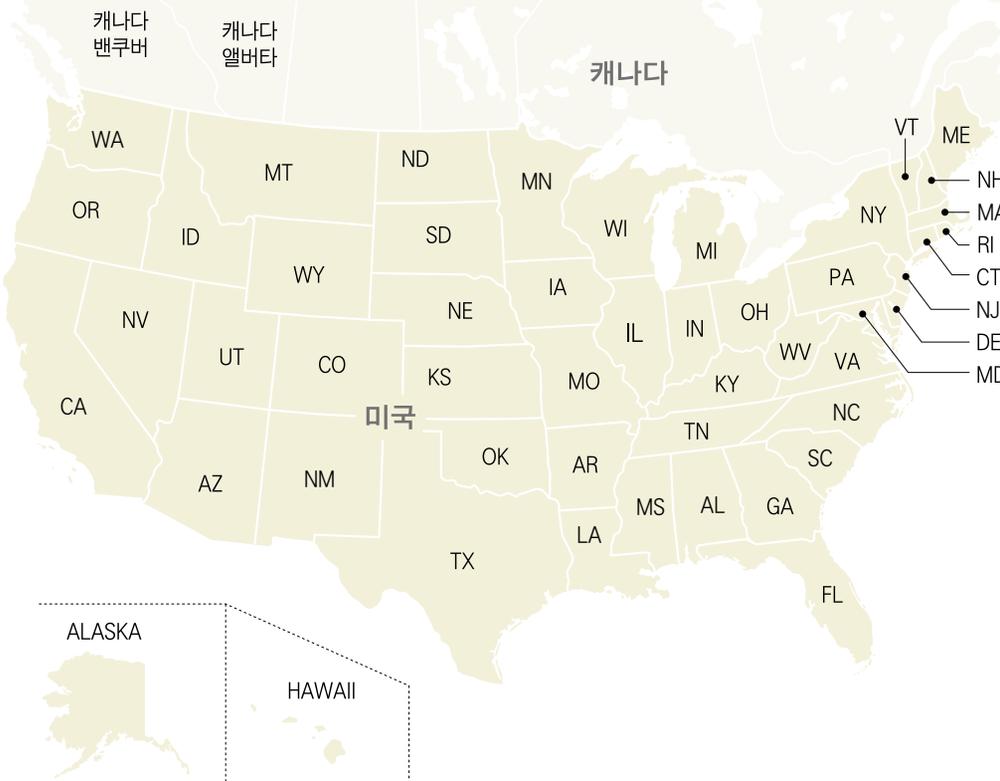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희(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
 차기 회장 이종태(사대 71) T: (267)266-2881
 leejt15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오윤환(공대 56) T: (520)271-2601
 youn.oh@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차민영(의대76)

멋진 인생 시니어! 제2의 인생 항해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뷰
아름다운 시니어

건강하고 멋진 시니어 인생은
저 이순재와 함께
아름다운 항해로 시작하십시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시니어 분들의 인생 항해에
함께 하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시니어 배우 이순재

Fairway Asset Corporation *You Can Trust*

남욱현(경영대 84)

“ 웃음 가득한 편안한 가정,
Fairway Asset Corporation 이 함께합니다.”

가정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모기지 페이먼트,
단순한 용자 서비스를 넘어서, 건전한 가정경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Fairway Asset Corporation 은 워싱턴 지역 Lender 로서
고객의 편의, 최저의 이자율, On Time Closing Service 를 위해
License 를 갖춘 용자 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익의 사회환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www.facloan.com NMLS#293044(www.nmlsconsumeraccess.org)

• VA License No. MC5452 • MD License No. 183469 • DC License No. MLB293044 • DE License No. 019327 • NC License No. L-169942 • GA License No. 60069
• PA License No. ML48710 • NJ License No. 293044 • CA License No. 603J584 • IN License No. 27916 • CO License No. 293440 • AL License No. 22538
• IL License No. MB 6761371 • FL License No. MLD1737 • TN License No. 176973 • TX License No. 293044

Maryland Office

301-279-6969

15400 Calhoun Dr. #120, Rockville MD 20855

Fairfax Office **703-204-0022**

Annandale Office **703-256-6002**

Centreville 지역 **703-371-8343**

Ellicott City 지역 **301-279-8662**

Silver Spring 지역 **301-456-9962**

DE & PA 지역 **267-275-9439**

NJ 지역 **201-888-7456**

NC 지역 **917-418-3587**

Richmond 지역 **703-309-5755**

GA(Atlanta) 지역 **404-578-1426**